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순서 연결어미 ‘-고’와 ‘-아/어서’의  
오류 양상 연구

-베트남인 학습자 대상으로-

A Study on the Errors of Korean Connective Endings  
‘-go’ and ‘-aseo/eoseo’  
-Focused on Vietnamese Learners-

2021년 8월

세종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DOAN THU THAO

순서 연결어미 ‘-고’와 ‘-아/어서’의  
오류 양상 연구

-베트남인 학습자 대상으로-

A Study on the Errors of Korean Connective Endings  
‘-go’ and ‘-aseo/eoseo’  
-Focused on Vietnamese Learners-

지도교수 주 경 희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8월

세종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DOAN THU THAO

도안 투 타오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8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순서 연결어미 ‘-고’와 ‘-아/어서’와 관련한 베트남인 학습자의 오류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교육 내용의 구축의 차원에서 ‘-고’와 ‘-아/어서’의 형태적·통사적·의미적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본 후 이 두 문법 항목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고’와 ‘-아/어서’는 일상생활에서 사용빈도가 높기 때문에 주로 초급 단계에서 다루어진다. 그러나 중급과 고급 단계의 학습자도 ‘-고’와 ‘-아/어서’를 사용할 때 쉽게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이들의 의미와 용법을 정확히 알고 구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서 한국어 순서 연결어미 ‘-고’와 ‘-아/어서’의 형태적·통사적·의미적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한국어 순서 연결어미 ‘-고’, ‘-아/어서’와 베트남어 순서 관계 접속사들을 대조 분석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베트남인 학습자들의 연결어미의 오류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베트남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베트남인 학습자가 한국어의 연결어미를 학습할 때 왜 오류를 범하는지에 대한 원인을 밝혀냈다.

5장에서는 설문 결과를 통해 나타난 오류 원인을 바탕으로 베트남인 학습자가 순서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고’와 ‘아/어서’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교육 모형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연구의 의의를 제시하였다.

**주요어** : 연결어미, 베트남어 표현, 오류 분석, 교육 방안, 오류 원인

# 목 차

<b>1. 서론</b> .....	<b>1</b>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1
1.2. 선행연구 검토 .....	4
1.3. 연구 내용 및 방법 .....	9
<b>2. 순서의 연결어미 ‘-고’와 ‘-아/어서’의 차이</b> .....	<b>11</b>
2.1. 형태적 특성 .....	11
2.2. 통사적 특성 .....	12
2.2.1. 시제 제약 .....	12
2.2.2. 자·타동사 관련 .....	13
2.2.3. 부정문 제약 .....	14
2.2.4. 문장 종류 제약 .....	15
2.2.5. 주어 일치 제약 .....	16
2.3. 의미적 특성 .....	16
2.3.1. 지속성 .....	17
2.3.2. 상관성 .....	17
<b>3. 베트남어 대응 표현</b> .....	<b>20</b>
3.1. 베트남어의 접속사 개념 및 분류 체계 .....	20
3.2. ‘-고’에 대응하는 베트남어 표현 .....	23
3.3. ‘-아/어서’에 대응하는 베트남어 표현 .....	24
<b>4. 베트남인 학습자의 오류 양상 및 원인 분석</b> .....	<b>26</b>

4.1. 조사 대상 및 방법 .....	26
4.2. 조사 결과 .....	29
4.2.1. 학습자의 인식 조사 결과 .....	29
4.2.2. 주관식 문항 쓰기 결과 .....	37
4.2.3. 객관식 문항 조사 결과 .....	51
4.3. 오류 원인 .....	55
<b>5. 순서를 나타내는 ‘-고’와 ‘-아/어서’의 교육 방안 .....</b>	<b>60</b>
5.1. 교수 대상 .....	60
5.2. 교수 방법 .....	61
5.3. 교수 내용 .....	62
5.4. 교수 모형 .....	68
5.5. 수업 교안 .....	69
<b>6. 결론 .....</b>	<b>78</b>
참고문헌 .....	81
Abstract .....	84

## 표 목 차

<표 1> 순서 연결어미 ‘-고’, ‘아/어서’의 유사점과 차이점 .....	19
<표 2> 베트남어 접속사의 분류 (Diệp Quang Ban(2004) 참조) .....	21
<표 3> 설문조사 1단계 진행 방식 .....	27
<표 4> 쓰기 문항 목록 .....	28
<표 5> 설문조사 3단계 진행 방식 .....	29
<표 6> 1.2. 문항 응답률 .....	30
<표 7> 1.3. 문항 응답률 .....	30
<표 8> 1.4. 문항 응답률 .....	31
<표 9> 1.5. 문항 응답률 .....	31
<표 10> 1.6. 문항 응답률 .....	32
<표 11> 1.7. 문항 응답률 .....	33
<표 12> 1.8. 문항 응답률 .....	33
<표 13> 1.9. 문항 응답률 .....	34
<표 14> 1.10. 문항 응답률 .....	35
<표 15> 1.11. 문항 응답률 .....	35
<표 16> 1.12. 문항 응답률 .....	36
<표 17> 1.13. 문항 응답률 .....	37
<표 18> 조사 결과에 따른 연결어미 사용빈도 .....	38
<표 19> ‘-고’와 ‘-아/어서’의 의미별 사용빈도 .....	40
<표 20> 쓰기 자료에 나타난 ‘-고’와 ‘-아/어서’의 순서 의미 사용 양상 · 41	41
<표 21> ‘-고’와 ‘-아/어서’의 순서 의미 오류 유형 및 빈도수 .....	42
<표 22> 상관성 및 지속성 관련 오류 수와 오류 발생률 .....	48
<표 23> 베트남인 중·고급 학습자의 연결어미 의미적 오류 양상 .....	51



<표 24> 교수의 방법 .....	62
<표 25> 순서 ‘-고’와 ‘-아/어서’의 의미적 차이 .....	65
<표 26> ‘-고’와 ‘-아/어서’의 연습 문제 .....	66
<표 27> ‘-고’와 ‘-아/어서’와 항상 결합되는 동사 .....	66
<표 28> ‘-고’와 ‘-아/어서’의 연습 문제 .....	66
<표 29> ‘-고’와 ‘-아/어서’의 제약 특성 .....	67
<표 30> ‘-고’와 ‘-아/어서’의 연습 문제 .....	67
<표 31> 순서 연결어미 ‘-고’와 ‘-아/어서’의 교안 .....	70

## 그림 차례

<그림 1> 순서 ‘-고’와 ‘-아/어서’의 지속성 .....	65
------------------------------------	----

# 1. 서론

##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베트남 학습자들이 순서 연결어미 ‘-고’와 ‘-아/어서’의 형태·통사·의미적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오류 양상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있다. 본 연구를 위해 베트남 학습자를 대상으로 객관식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주관식 쓰기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류 원인을 분석하였다으며, 오류 원인 분석을 통해 순서 연결어미 ‘-고’와 ‘-아/어서’의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베트남인이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휘상으로 봤을 때 베트남어와 한국어는 같은 한자어권이기 때문에 어휘상의 공통점이 많아 어휘 학습 과정은 수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법상 교착어에 속하는 한국어와 고립어에 속하는 베트남어는 상당히 다르며, 특히 한국어의 연결어미 체계를 학습할 때 베트남 학습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베트남어는 연결어미 기능을 하는 접속사가 많이 발달하지 않은 반면, 한국어는 연결어미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형태를 가진 연결어미가 선·후행절의 관계에 따라 다양한 문맥적 의미로 해석되거나 별개의 형태를 가진 연결어미들이 문맥 속에서 유사한 의미 기능을 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한국어 연결어미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형태적으로 다르지만 의미적으로 비슷한 두 어미를 학습할 때 두 연결어미가 문장 내에서 대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 두 연결어미를 대치했을 때는 의미상의 미묘한 변화가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어색한 문장이 된다. 특히 중·고급 학습자의 경우 연결어미 ‘-고’와 ‘-아/어서’

를 학습하여 알고는 있으나 명확하게 그 뜻을 구분해내지 못하여 전체 문장의 의미를 잘못 파악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오류는 연결어미 습득 과정에서 문법의 기초를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초급 단계에서 연결어미의 형태·통사·의미적 기능을 제대로 구분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수를 함을 통해 오류를 줄여야 한다.

‘-고’, ‘아/어서’는 초급 단계에서 배우게 되는 순서의 의미를 갖는 연결어미이며 매우 까다로운 문법요소로 볼 수 있다. 두 문법 항목의 형태·통사·의미적 유사점으로 인하여, 실제로 학습자들은 두 문법 항목을 혼동하여 오류를 범한다. 또한 두 항목의 시제 제약, 주어 일치 제약, 서술어 제약, 문장 종류 제약, 부정문 제약에 있어서도 같은 조건을 가지므로 학습자들이 정확히 구분하여 사용하기 어렵고 교사조차도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 게다가 아래와 같이 모여 간접 때문에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두 항목을 구별하여 사용할 때 오류를 많이 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 ㄱ. 옷을 벗고 누웠다.

Cởi áo rồi nằm xuống.

(벗다/ 옷/ 고/ 눕다.)

ㄴ. 옷을 벗어서 벽에 걸었다.

Cởi áo rồi treo lên tường.

(벗다/ 옷/ -어서/ 걸다/ 벽.)

위의 (1)의 예문은 모두 정문이며 문맥에 따라 문장의 의미가 다소 달라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 ‘-고’나 ‘-아/어서’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사용해야 한다. (1ㄱ)은 ‘옷을 벗는 것’과 ‘눕는 것’ 사이의

상관성이 약한 반면에 (1ㄴ)은 ‘옷을 벗는 것’과 ‘벽에 옷을 거는 것’ 사이의 상관성이 강하다. 즉, (1ㄱ)과 같이 ‘놓는 것’은 ‘옷을 벗는 것’이 없더라도 가능하지만 (1ㄴ)과 같이 ‘벽에 옷을 거는 것’은 ‘옷을 벗는 것’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러나 베트남어에서는 상관성이 약하든 강하든 모두 ‘ròi’와 같은 하나의 접속사로 표현해도 된다.

(2)ㄱ.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간다.

Đi xe bus (ròi) đến trường.

(타다/ 버스/ (고)/ 가다/ 학교.)

ㄴ. 학교에 걸어서 간다.

Bước (ròi) đi đến trường.

(걸다/ (-어서)/ 가다/ 학교.)

(2)의 예문을 보면 한국어에서는 지속성에 따라 ‘-고’나 ‘-아/어서’를 선택하여야 한다. (2ㄱ)의 경우는 ‘버스를 타는’ 행동이 이미 끝났고 그 행동이 유지된 상태에서 ‘학교에 가는’ 다음 행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고’를 선택해야 한다. 반면에 (2ㄴ)의 경우는 ‘걷는’ 행동과 ‘학교에 가는’ 행동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어서’가 사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베트남어에서는 접속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즉, 접속사를 생략해도 통사적으로나 의미적으로 올바른 문장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적 차이를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구분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베트남어 접속사와 한국어 연결어미가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언어 대조 분석을 진행하고 베트남어에서의 대응 표현을 찾고자 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연결어미 ‘-고’와 ‘-아/

어서'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나 베트남인 학습자들을 위한 이 두 문법 항목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베트남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순서의 연결어미 '-고'와 '-아/어서' 학습 시 겪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적절한 교수 방안을 구성하고자 한다면 베트남인 학습자들의 오류 양상을 살펴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순서 연결어미 '고'와 '-아/어서'를 사용하는데 의미의 구분이 없이 습관처럼 '-고'나 '-아/어서'를 사용하는지, 두 문법 항목의 의미를 구별하지 못하여 함부로 섞어서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오류를 범하는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순서 연결어미 '-고'와 '아/어서'의 차이를 형태·통사·의미적 특성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베트남어와의 대응 표현을 찾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실제로 베트남인 학습자들의 두 항목에 대한 오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오류 원인을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교육 지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1.2.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를 위해 살펴볼 선행연구들은 학습자의 연결어미 오류 양상에 관한 연구, '-고'와 '-아/어서' 대한 연구,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연결어미에 관한 연구의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한국어 교육에서의 연결어미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한국 연결어미에 관한 자료는 이재경(2002), 김중섭(2002), 연봉월(2009)의 등과 같이 상당히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다.

이재경(2002)에서는 작문 자료를 바탕으로 일본어권, 중국어권, 기타 언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의 연결어미 오류 양상을 작문 분석 결과를 통해 분

석하였다. 조사 결과, 한국어 학습자는 급별로 다양한 연결어미를 배우고 있는데도 한정된 연결어미만을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의 연결어미 중 대등적인 문장의 연결에서는 ‘-고’를, 이유를 나타내는 문장의 연결에서는 ‘-아/어서’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초급에서의 연결어미 교육 순서를 ‘-고’→ ‘-아/어서(이유)’→ (간략)→ ‘-아/어서(순서)’→ (간략)’의 순으로 제시하였다.

김중섭(2002)에서는 초·중·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각 언어권별(일본어권, 중국어권, 영어권, 러시아권, 기타언어권) 연결 어미 오류 양상을 살펴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학습 단계가 높아질수록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논의 하였으며, 언어권별로 나타난 오류 유형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어려운 문법에 대한 학습 과정을 단순화시키기 위하여 교사가 학습자의 언어권별의 특징적인 오류 양상을 필수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게다가 연결어미 오류에 대해 의미적으로 유사한 연결어미를 잘못 구분하여 대치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데,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어미들을 묶어 제시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효과적인 교수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봉월(2009)에서는 한국어의 어미 계통이 까다롭기 때문에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며 그 결과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중급 단계 이상의 학습자가 실제로 어떤 연결어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습자들의 작문과 설문지 조사 방법을 병행하였다. 또한 학습 시 나타나는 연결어미 오류를 분석한 후 지도 방안을 구성하였다. 조사 자료에서 나타난 연결어미의 오류의 유형은 ‘환언 오류’, ‘생략 오류’, ‘대치 오류’, ‘첨가 오류’, ‘형태 오류’의 5가지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오류는 ‘대치 오류’였고 ‘-고’, ‘-아/어서’의 대치의 오류가 24.1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 ‘-고’는 선·후행절 가운데에 아무 관계가 없이 단순히 시간적인 순서가 일어나지만 반면에 ‘-아/어서’는 선행절의 행위가 후행절의 배경이 되고 후행절의 행위가 선행절의 행위의 목적이 되는 차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한 대로 사용하는 것이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를 통하여, ‘-아/어서’에 대한 의의가 있는 지도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중급 단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결어미 사용 실태 및 오류 양상을 수집한 작문과 조사 자료를 통하여 알아보았으나 언어권별의 특징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았다. 또한 전체 연결어미의 오류 양상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고’와 ‘-아/어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에 있어 부족함이 있고 교육 방안도 ‘-고’에 대한 지도 방안을 고안하지 못하였다. 또한 베트남인 학습자 2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인 피실험자의 수를 늘리고 ‘-고’와 ‘-아/어서’에 집중하여 오류 양상과 베트남의 대응 표현을 찾은 후, 오류 원인을 분석하고 그 바탕으로 순서의 ‘-고’와 ‘-아/어서’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연결어미 ‘-고’와 ‘-아/어서’를 중점으로 두고 학습자의 오류를 분석하는 연구들을 검토해보았다. 이러한 연구로는 허용 외(2005), 김호정·강남옥(2010), 김동수(2011) 등의 연구가 있다.

허용 외(2005)에서는 ‘-고’와 ‘-아/어서’의 다름에 대해 두 행동은 서로 상관이 없으면 ‘-아/어서’를 사용하고 반면에 상관이 있으면 ‘-고’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는 ‘-아/어서’와 ‘-고’의 다른 점이 의미적 측면에서만 존재하고 게다가 통사론적으로도 다루었다고 하였다.

김호정·강남옥(2010)에서는 오류 말뭉치에 따라 ‘-고’와 ‘-어서’의 습득 실태를 살펴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문법 습득 과정 시 나타나는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그 원인이 연결어미의 선·후행절 행위의 시간적

인식에 비롯하고 있음을 설명하였고 학습자의 오류 양상을 바탕으로 교육 자료로 모색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논의하였다.

김동수(2011)에서는 순서의 연결어미 ‘-고’와 ‘-아/어서’의 차이에 대해 기술하고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와 한국어 교재 말뭉치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학습자의 사용 양상에 ‘-아/어서’보다는 ‘-고’의 오류율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고’의 경우 자동사와 타동사와 함께 사용될 때 모두 오류가 발견되는 반면 ‘-아/어서’는 주로 타동사와 함께 사용될 때 오류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자동사의 경우 ‘-고’와 ‘-아/어서’의 차이를 구분하는 용법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연결어미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베트남어의 접속사와 한국어의 연결어미 계통을 비교한 연구 자료는 적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로는 김수미(2010), 이병운(2011), Tran Chau Thuy(2010), Nguyen Ngoc Thu(2020) 등의 연구가 있다.

김수미(2010)에서는 언어권별(베트남어, 일본어, 중국어)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연결어미의 교육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실제 담화 분석을 통하여 학습자들이 범하게 되는 연결어미 오류에 대해 기술하고 언어별 연결어미 오류의 형태·통사·의미적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러나 연결어미 변별 기준을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으며, 오류 유형과 원인을 분석할 때 오히려 학습자들에게 혼란시킬 수 있는 것이 아쉽다. 따라서 본고의 2장에서는 분명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오류 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병운(2011)에서는 베트남어의 문법적 특성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을 한 후, 베트남인 학습자의 작문 자료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의 조사, 시제, 어미 오류 유형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시간과 관계 없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및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구분, 의미적 측면에 대한 학습이 필요



함을 지적하는 등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수·학습 방향을 제시하였다.

Tran Chau Thuy(2010)에서는 연결어미의 효과적인 지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베트남인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작문 실험을 실시한 후, 학습자의 연결어미 사용 실태와 연결어미에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베트남어의 경우 어미와 어간을 구분하지 않고 또 어미라는 용어가 없으며, 베트남어의 접속사에 비해서 한국어의 연결어미는 다양한 의미와 통사적 제약 조건을 갖기 때문에 베트남인 학습자가 한국어 연결어미를 사용할 때 오류를 많이 일으킨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개별 연결어미의 오류 형태만 살펴보고 구체적인 오류 원인에 대해 구명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초급 학습자만 한정하는 것이 이 연구의 한계점이 되었다. 앞서 김종섭(2002)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급 및 고급에서 오류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초급만 아니라 중급 및 고급 단계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Nguyen Ngoc Thu(2020)에서는 중급 단계 베트남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습자가 담화에서 사용하는 연결어미를 알아보기 위해 인터뷰를 실시한 후 학습자들의 연결어미 사용 및 오류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조사 결과를 통하여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교육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의 대상은 중급 단계에서만 그치고 고급 단계 학습자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았다. 학습자의 학습 단계가 올라감에 따라 오류를 범하는 경향이 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게다가 이 연구에서는 연결어미의 형태·통사·의미적 오류 양상만을 살펴보고 오류 원인은 밝혀내지 못하였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국어 연결어미 오류를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도 방안을 구성하지 않은 것도 한계점이 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급과 고급 단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구하고

자 하며, ‘-고’와 ‘-아/어서’에 대한 오류 원인을 밝힌 후 구체적인 교안까지 제시하고자 한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어 연결어미, 특히 ‘-고’와 ‘-아/어서’와 관련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베트남인 학습자 대상의 순서 연결어미 ‘-고’와 ‘-아/어서’ 관련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순서 연결어미 ‘-고’와 ‘아/어서’의 사용 양상과 원인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1.3.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순서 연결어미 ‘-고’와 ‘-아/어서’의 형태·통사·의미적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어미 오류 양상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교육 지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살펴보고, 연구 대상과 방법을 제시하며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2장에서는 순서 연결어미 ‘-고’와 ‘-아/어서’ 관련 선행연구와 한국어 교재 자료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순서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고’와 ‘-아/어서’의 형태·통사·의미적 차이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베트남어 접속사와 한국어 연결어미를 대조 분석한다. 그리고 한국어의 순서 연결어미 ‘-고’와 ‘-아/어서’에 대응하는 베트남어 표현을 찾아본다.

4장에서는 베트남인 학습자들의 문장 쓰임에서 연결어미의 오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베트남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조사 결과를 통해 베트남인 학습자가 연결어미 ‘-고’와 ‘-아/어서’를 학습할 때 나타나는 오류 유형을 파악하고 오류 원인도 분석한다.

5장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나타난 오류 원인을 바탕으로 순서 연결어미 ‘-고’와 ‘아/어서’를 잘 구분하여 유창하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육 모형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던 내용을 정리하고 본 연구의 의의를 제시한다.

## 2. 순서의 연결어미 ‘-고’와 ‘-아/어서’의 차이

이 장에서는 선행연구와 한국어 교육 자료<sup>1)</sup>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순서 연결어미 ‘-고’와 ‘-아/어서’를 형태·통사·의미적 특성으로 나누어 이들의 유사한 점과 차이점을 예문과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 2.1. 형태적 특성

국립국어원(2005)에서는 두 연결어미는 시간적으로 앞 문장의 행위가 먼저 일어난 후 뒤 문장의 행위가 일어나는 문장을 이어줄 때 쓴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절과 후행절 모두 동사와만 어울리고, 두 연결어미가 동사가 아닌 형용사나 ‘(이)다’와 같은 다른 품사와 결합한다면 ‘-고’의 경우는 ‘나열’, ‘-아/어서’의 경우는 ‘이유, 원인’의 의미를 지니는 것임을 제시했다.

(3) 가.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로 갔다.

나. 우리는 아침을 먹고 학교로 갔다.

(국립국어원, 2005: 125)

(4) 가. 그 사람은 가수이어서 노래를 잘 부른다. (이다)

나. 그 음식이 매워서 맛있다. (형용사)

다. 그 사람은 가수이고 선생이다. (이다)

르. 그 음식이 맵고 맛있다. (형용사)

(3)의 예에서는 선·후행절이 모두 동사이므로 앞 문장에 이어진 행동은 뒤 문장에 이어진 행동보다 시간적으로 앞선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

1) 이 장에서는 김선미(2017), 국어국립원(2005), 박지영(2016), 서정수(1982), 이상복(1978), 임봉교(2018), 정혜인(2016), 허용 외(2005)의 문헌 연구의 내용을 참고하여 기술하였다.

있다. 그러나 (4)와 같은 경우는 ‘순서’가 아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문들이다. (4ㄱ)에서는 앞 내용에 그 사람이 ‘가수’인 원인이 나오며 뒤 내용에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인 결과가 따라온다. (4ㄴ)도 마찬가지로 ‘이유-원인’으로서의 ‘-아/어서’를 사용한다. (4ㄷ)과 (4ㄹ)에서 ‘-고’는 선·후행절의 사이에서 그저 ‘나열’의 의미를 갖는다.

## 2.2. 통사적 특성

### 2.2.1. 시제 제약

통사적 측면에서 살펴 볼 때, 국립국어원(2005)에서는 ‘-고’와 ‘-아/어서’는 과거를 나타내는 어미 ‘-았/었-’이나 미래, 의지, 추측을 나타내는 어미 ‘-겠-’ 등과 함께 쓰일 수 없다고 제시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어미가 뒤 문장에만 오고 앞 문장에는 나타나지 않음을 뜻한다.

- (5) ㄱ.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렸다.  
 ㄴ.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겠다.  
 ㄷ. \*도서관에 갔어서 책을 빌렸다.  
 ㄹ. \*도서관에 가겠어서 책을 빌리겠다.

- (6) ㄱ. 공부를 하고 잤다.  
 ㄴ. 공부를 하고 잘 것이다.  
 ㄷ. \*공부를 했고 잤다.  
 ㄹ. \*공부를 하겠고 자겠다.

위의 (5ㄱ)과 (6ㄱ)은 과거의 내용을 서술하고 있으며 (5ㄴ)과 (6ㄴ) 경우는 각각 화자의 의지나 추측을 나타내는 예문이다. 이때 시제를 나타내는



(9) ㄱ. 녹음 파일을 틀고 들었다.

그러나 예문 (9)는 ‘트는’ 행동과 ‘듣는’ 행동이 ‘녹음 파일’이라는 같은 목적어를 사용한 경우인데 ‘-아/어서’가 아닌 ‘-고’를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를 볼 때, 목적어의 중복 여부의 특징에 따라 ‘-고’인지 ‘-아/어서’인지 판단하고 사용하는 것은 항상 옳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정혜인(2016)에서는 이러한 예시에 대해 ‘-고’를 단순한 시간의 관계가 아닌 ‘지속’의 의미로 보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즉, ‘틀고 들었다’처럼 선행 관계만을 나타내지 않고 지속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라면 선행절의 행동이 완료되었는지에 따라 ‘-고’나 ‘-아/어서’를 선택하는 것이다. 만약 그 선행절의 행동이 완전히 끝났고 행동이 남아 있는 결과만 지속된다면 ‘-고’를 사용하고, 반대로 그 행동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후행절 행동과 함께 이어진다면 ‘-아/어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의미적 측면에서도 좀 더 분명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 2.2.3. 부정문 제약

순서란 두 가지 이상의 행동이 순서적으로 일어날 때 연결하는 의미로 정의하는데, 만약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순서’의 의미로 볼 수 없다. ‘-고’와 ‘-아/어서’는 부정문과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순서의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를 표현한다고 보아야 한다<sup>2)</sup>.

(10) ㄱ. 철수는 숙제를 안 하고/못 하고/하지 않고/하지 못하고 학교에 갔다.

---

2) ‘순서’ 의미를 갖는 ‘-고’와 ‘-아/어서’는 부정문과 결합할 때 특정한 상황에서 맞는 문장이 될 것 같기도 함. 통사적으로는 부정문이 들어가면 어색한 것은 사실이나, 화용론 차원에서 맞을 때가 있으므로 본문에서 화용론 측면 말고 통사론 측면에서만 검토함.

ㄴ. 철수는 숙제를 하고 학교에 안 갔다/못 갔다/가지 않았다/가지 못했다.

ㄷ. 철수는 숙제를 안 하고/못 하고/하지 않고/하지 못하고 학교에 안 갔다/못 갔다/가지 않았다/가지 못했다.

(11) ㄱ. 철수는 숙제를 안 해서/못 해서/하지 않아서/하지 못해서 학교에 갔다.

ㄴ. \*철수는 숙제를 해서 학교에 안 갔다/못 갔다/가지 않았다/가지 못했다.

ㄷ. 철수는 숙제를 안 해서/못 해서/하지 않아서/하지 못해서 학교에 안 갔다/못 갔다/가지 않았다/가지 못했다.

예문 (10)과 (11)은 모두 ‘순서’의 의미로 볼 수 없다. (10ㄱ)을 보면 ‘-고’는 그저 ‘숙제를 안 한’ 행동과 ‘학교에 가는’ 행동을, (10ㄴ)은 ‘숙제를 하는’ 행동과 ‘학교에 안 가는’ 행동을, (10ㄷ)은 ‘숙제를 안 하는’ 행동과 ‘학교에 안 가는’ 행동을 시간 관계없이 단순하게 나열의 의미로 연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모두 비문은 아니지만 ‘순서’의 의미로 판단하기보다 어떤 사실이 나타나면 그 행동을 강조할 뿐이라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11)예를 볼 때도, (11ㄱ,ㄴ)은 완전히 성립되지 않는 경우이고 (11ㄷ)의 경우 ‘학교에 안 가는’ 이유는 ‘숙제를 안 한’ 것에 대한 인과 관계일 뿐이다.

#### 2.2.4. 문장 종류 제약

국립국어원(2005)에서는 순서 연결어미 ‘-고’와 ‘-아/어서’는 아래와 같이 명령문이나 청유문과도 잘 어울린다고 제시하였다.

(12) ㄱ. 학교에서 숙제를 다 하고 집에 가자/가라.



ㄴ. 책을 가지고 와서 도서관에서 반납하자/하라.

예문 (12)에서 볼 수 있듯이, 순서 ‘-고’와 ‘-아/어서’는 문장 종류의 제약 없이 청유문이나 명령문과도 잘 결합한다. 그러나 두 항목의 선·후행절의 주어가 같아야 순서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 2.2.5. 주어 일치 제약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앞문장과 뒤 문장의 내용이 시간적 차례에 의해 일어나는 것을 보여 주려면 주어가 동일해야 한다.

(13) ㄱ. 내가 (먼저) 세수를 하고 (그 다음에) 민수가 세수를 했다.

(국립국어원, 2005: 126)

(13)의 경우는 선·후행절 사이에 ‘-고’를 사용하였으나 ‘순서’가 아닌 ‘먼저, 그 다음에’와 같은 단어에 의한 것이다(국립국어원, 2005). 이러한 단어를 없애면 ‘제가 집에 들어오고 동생이 집에 들어왔다’와 같은 문장과 같이 의미적 측면에서도 어색하고 두 행동이 시간적으로 나타나는 의미도 사라지게 된다.

## 2.3. 의미적 특성

두 항목의 순서 의미론적 차원에서 보면 지속성과 상관성의 두 가지의 차이점을 볼 수 있다.

### 2.3.1. 지속성

서정수(1982)에서는 끝남의 속성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지속성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박지영(2016)에서는 지속성은 앞의 동사를 하나의 행동으로 보거나 반복되는 행동의 연속으로 보는가에 중점을 둔다고 하였다. 앞뒤 문장 사이의 지속성에 관한 논의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4) 가. 그는 밥을 먹고 학교에 갔다.

나.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갔다.

(국립국어원, 2005: 127)

(15) 가. 그는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

나. 밖에 나가서 놀자.

(국립국어원, 2005: 128)

위의 (14가)와 (15가)의 경우는 후행절의 행동이 일어나기 전 선행절의 행위가 완전히 끝난 상태의 경우인데 반면에, (14나)과 (15나)은 앞의 행동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후의 행동이 발생한 경우이다. 즉, ‘-고’는 선행절에 나타나는 행동이 끝난 후에 후행절에 일어나는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에 사용되는 반면에 ‘-아/어서’는 선행절에 나타나는 행동이 계속 지속되는 상황에서 후행절에 나타나는 행동이 일어나는 경우에 사용된다.

### 2.3.2. 상관성

순서 ‘-아/어서’와 ‘-고’에 대한 논의로는 지속성에 관한 논의 말고도 상관성에 관한 논의가 있다. 서정수(1982)에서는 상관성은 앞 절의 어떠한 요

소가 뒷 절을 한정하는 기능을 가진 특성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임봉교(2018)에서는 상관성은 선행절의 어떠한 요소가 후행절에서 반복되는가를 말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상복(1978)에서는 ‘-아/어서’의 경우 선행절은 후행절에 필요한 준비 행위를 나타내는 데 반해 ‘-고’는 선·후행절의 상관성이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허용 외(2005)에서는 선·후행절의 의미 관계에 있어서 두 행위가 서로 관련을 맺으면 ‘-어서’를 사용하며 관련을 맺지 않으면 ‘-고’를 사용한다고 보았다.

(16) ㄱ. 옷을 벗고 누웠다.

ㄴ. 옷을 벗어서 걸었다.

(국립국어원, 2005: 127)

(17) ㄱ. 아침을 먹고 학교에 갔다.

ㄴ.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갔다.

(국립국어원, 2005: 127)

(16ㄱ)과 (16ㄴ)은 모두 순서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연결어미로 각각 ‘-고’와 ‘-아서’가 쓰였다. (16ㄱ)과 같이 선후 행위의 관계에 있어 상관성이 약하여 앞의 행위가 일어나지 않아도 뒤의 행위가 나타날 수 있으나 (16ㄴ)의 경우 상관성이 밀접하기 때문에 선행절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으면 ‘옷을 거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예문 (17)도 마찬가지인데, (17ㄱ)에서는 ‘아침을 먹는’ 행동과 ‘학교에 가는’ 행동이 아무 상관도 없으므로 선·후행절이 ‘-고’로 연결된다. 이와 반면에 (17ㄴ)에서는 ‘학교에 가는’ 행동에 ‘일어나는’ 행동이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고’ 아닌 ‘-아/어서’가 쓰인다.

위에서 살펴봤듯이, ‘순서’를 갖는 ‘-고’와 ‘-아/어서’는 형태·통사·의미적 측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동시에 존재한다. 위의 살펴본 내용들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3)</sup>.

<표 1> 순서 연결어미 ‘-고’, ‘아/어서’의 유사점과 차이점

	‘-고’	‘-아/어서’
유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동의 시간적 순서를 나타내는 연결어미</li> <li>◆ 선행절에서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 ‘-았/었-’이나 ‘-겠-’ 등과 함께 쓰일 수 없음.</li> <li>◆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주어가 같음.</li> <li>◆ 선·후행절에서 모두 동사만 결합 할 수 있음.</li> <li>◆ 명령문이나 청유문의 경우 문장 종류 제약이 없으나 부정문은 기본적으로 나타나지 않음.</li> </ul>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 문장과 뒤 문장은 상관성이 약함.</li> <li>◆ 선·후행절의 동사들이 모두 타동사인 경우 두 동사가 각각의 목적을 가질 때 사용함.</li> <li>◆ 앞의 행위가 끝난 후 그 다음 행위가 일어나는 경우 사용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 문장과 뒤 문장은 상관성이 긴밀함.</li> <li>◆ 선·후행절의 동사들이 모두 타동사인 경우 두 동사가 일치한 목적을 가질 때 사용함.</li> <li>◆ 앞의 행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그 다음 행위가 일어나는 경우 사용함.</li> </ul>

3) 김선미(2017) 인용.

### 3. 베트남어 대응 표현

2장에서는 순서 연결어미 ‘-고’와 ‘-아/어서’의 형태·통사·의미적 특성을 밝히고 두 연결어미의 차이점에 대하여 논하였다. 이 장에서는 두 연결어미가 베트남어와 어떻게 대응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순서 ‘-고’와 ‘-아/어서’에 대응하는 베트남어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교착어로서의 한국어와 고립어로서의 베트남어 접속문의 표현 방식에 대하여 알아보하고자 한다.

#### 3.1. 베트남어의 접속사 개념 및 분류 체계

교착어인 한국어와 달리, 베트남어는 고립어이며 주어-서술어-목적어(S-V-O)<sup>4)</sup>형식의 어순을 갖는 언어이다. Đào Minh Thu, Đào Thị Minh Ngọc, Nguyễn Mai Vân, Lê Kim Ngân, Lê Thanh Hương, Nguyễn Phương Thái, Đỗ Bá Lâm(2005)에서는 베트남어의 주어-서술어 문장을 단순문과 복합문으로 분류하였다. Diệp Quang Ban(2004)에서는 복문을 구분할 때 주로 절과 절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 접속사에 따라 구분한다고 하였다.

접속사에 대하여는 연구자마다 정의하는 개념과 지칭이 다르다. 여러 논의의 베트남어 접속사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Nguyễn Anh Quế(1988)에서는 주로 단어와 단어, 구와 구의 결합기능에 의하여 허사를 분류하기 때문에 허사를 부사, 전치사, 접속사, 조사, 부사로 하위분류하였고 접속사란 같은 종류를 갖는 요소를 주로 연결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

4)서양 문법의 영향을 받은 베트남어의 전통 문법에 따라 문장 성분을 3가지로 나누었다:  
S(Subject)임자말(주어)  
V(Verb):풀이말(서술어)  
O(Object):부림말(목적어)

Tran Chau Thuy(2010)에서는 베트남어의 접속사란 실사와 실사, 실사와 허사 등의 사이에서 문법 관계를 명백하게 표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접속사는 단어와 단어, 구절과 구절, 문장과 문장을 연결한다고 하였다.

Nguyen Ngoc Thu(2020)에서는 단어와 단어, 절과 절 사이를 표시하기 위해 그 단어와 단어, 절과 절 관계를 연결해 주는 단어나 한 쌍의 단어의 명칭을 접속사로 칭하였다.

Diệp Quang Ban(2004)는 다음 <표 2>와 같이 접속사의 구성을 정리하였다.

<표 2> 베트남어 접속사의 분류 (Diệp Quang Ban(2004) 참조)

	의미		접속사		
			접속사1	접속사2	
정- 부정 복문	원인-이유		Vì...	Nên/ mà...	
			Bởi...		
			Do...		
			Tại...		
	조건-가정		Nếu...	Thì...	
			Giá...		
			Hễ...		
양보/ 가정-대조		Tuy...	Nhưng...		
		Mặc dù...			
목적		Để...	Thì...		
대등적 접속사	연합 관계 접속사	나열	Và...		
		보충	Và, mà...		
		시간	동시	Và...	
			연속	Và..., xong..., rồi...	
		원인-이유	Vì...		
		대조-대립	Còn, mà, nhưng...		
	선택	Hay là, hoặc...			
상호	나열	Còn...			

	연관 관계 접속사	보충		Còn...	
				Càng... càng...	
				Chẳng những... mà... còn...	
				Không chỉ... mà còn...	
				Nào... nấy...	
				Ai... nấy...	
				Đâu... đấy...	
		시간		동시	Còn... còn...
					Vừa... vừa...
					Vừa... đã...
				전환	Mới... đã...
					Đang... thì...
		원인-이유		Còn( đang).. đã...	
				Vì... nên...	
		조건		Do... nên...	
				Còn... còn...	
				Càng... càng...	
				Nào... nấy...	
				Ai... nấy...	
		대조-대립		Đâu... đấy...	
Còn...					

위의 <표2>에서 볼 수 있듯이 Diệp Quang Ban(2004)에서는 접속사의 구성을 정리하여 ‘và, xong, rồi, còn, vừa... đã, mới... đã, vừa... vừa...’를 시간 관계 접속사로 분류했다. 그 중에서 순서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로는 ‘và, xong, rồi’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Nguyễn Anh Quế(1988)에서는 순서의 의미를 가진 접속사는 하나의 유형인 ‘rồi’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1>(2008) 교재에서는 베트남어에서는 순서 관계로서 선·후행절의 행동을 연결할 때 ‘rồi’를 사용한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순서의 의미를 나타내는 베트남어의 접속사를 ‘rồi’라고 정리하겠다. 다음 절에서는 한국어 순서 연결어미 ‘-고’, ‘-아/어서’와 대응되며, 베트남어 순서의 의미를 갖는 ‘rồi’에 집중하여 구문에서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 3.2. ‘-고’에 대응하는 베트남어 표현

순서의 의미를 갖는 ‘-고’는 베트남어에서 어떤 표현으로 대응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8) ㄱ. 나는 선물을 사고 생일 파티에 간다.

Tôi mua quà rồi đi đến bữa tiệc sinh nhật.

(나/ 사다/ 선물/ 고/ 가다/ 파티/ 생일.)

ㄴ. 수업이 끝나고 알바를 하러 간다.

Học xong rồi đi làm thêm.

(수업/ 끝나다/ 고/ 가다/ 알바.)

ㄷ. 나는 과제를 하고 텔레비전을 본다.

Tôi làm bài tập rồi xem TV.

(나/ 하다/ 과제/ 고/ 보다/ 텔레비전.)

(18)과 같이 한국어에서 선·후행절의 순서 관계를 포현하는 ‘-고’에 대응되는 베트남어의 접속사는 ‘rồi’이다. 베트남어에서는 선행절의 행동이 완료된 후에 후행절의 행동이 진행된다는 의미를 표현할 때 선·후행절을 ‘rồi’ 접속사로 연결한다. 그리고 (19)와 같이 ‘rồi’는 생략하여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19) ㄱ. 나는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간다.

Tôi mặc đồng phục (rồi) đến trường.

(나/ 입다/ 교복/ (고)/ 가다/ 학교.)



ㄴ. 나는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간다.

Tôi đi tàu điện ngầm (rồi) đến trường.

(선생님/ 몰다/ 차/ (고)/ 서울/ 가다.)

(19)를 살펴보면 한국어에서는 ‘-고’로 ‘양태’와 ‘수단-방법’의 의미 관계를 표현하는데 반해 베트남어에서는 아무 접속사를 쓰지 않고 표현할 수도 있다.

이상과 같이 ‘-고’에 대응하는 베트남어 표현을 살펴보았다. 순서를 갖는 ‘-고’에 대응하는 베트남어 표현은 순서 관계에 속하는 접속사 ‘rồi’로 표현된다. 한국어는 조사와 어미라는 특징을 갖는 교착어이기 때문에 ‘양태’와 ‘수단-방법’의 의미 관계를 표현할 때 ‘-고’를 사용해야 하며 생략할 수 없다. 이와 반면에, 어미가 발달하지 않은 고립어인 베트남어에서는 보통 복문에서 접속사를 생략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즉, ‘양태’와 ‘수단-방법’의 의미를 표현할 때 접속사가 생략되는 경우 외에도 ‘-고’와 대응하는 베트남어 표현인 ‘rồi’로 하나만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

### 3.3. ‘-아/어서’에 대응하는 베트남어 표현

순서의 의미를 나타내는 ‘-아/어서’와 대응하는 베트남어 표현을 예문과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20)ㄱ.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직진한다.

Xuống ở bến xe bus rồi đi thẳng.

(내리다/ 정류장/ 버스/ -어서/ 직진하다.)

ㄴ. 나는 숙제를 해서 메일로 제출한다.

Tôi làm bài tập rồi nộp qua mail.

(나/ 하다/ 숙제/ -어서/ 제출하다/ 메일.)

(20)을 보면 베트남어에서는 순서 관계 접속사 ‘rồi’가 한국어 연결어미 ‘-아/어서’와 대응된다. 앞의 행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그 다음 행위가 일어나는 경우 베트남어에서 ‘rồi’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접속사를 생략해서 복문이 쓰이는 것도 가능하다.

(21) 나는 회사에 걸어서 간다.

Tôi bước (rồi) đến trường.

(나/ 걷다/ -어서/ 가다/ 학교.)

(21)의 경우, 한국어에서는 선·후행절 사이에 ‘수단-방법’ 의미를 나타낼 때 ‘-아/어서’로 연결하는데 반하여 베트남어에서는 접속사 없이 표현된다. 즉, 선·후행절의 관계가 ‘수단-방법’의 의미라면 접속사를 사용하지 않아도 정문이 될 수 있다.

위에서 논의했듯이 ‘-고’와 ‘-아/어서’에 대응되는 베트남어 표현은 다양하지만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베트남인 학습자는 많은 용법에서 ‘-고’와 ‘-아/어서’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에 부담을 가지게 된다. 이는 베트남인 학습자에게 대처 오류를 많이 범하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4. 베트남인 학습자의 오류 양상 및 원인 분석

앞에서 언급했듯이, 순서 ‘-고’와 ‘-아/어서’는 유사점과 차이점이 동시에 존재하며 게다가 같은 제약 조건도 가지고 있어, 베트남인 학습자들에게 있어 꽤 까다로운 문법 항목이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베트남인 학습자들의 연결어미 오류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베트남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 연결어미를 학습할 때 베트남인 학습자가 어떤 오류 유형을 가장 많이 범하는지 살펴보고 오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 4.1. 조사 대상 및 방법

본 조사는 베트남인 한국어 중·고급(한국어 능력 시험 3~6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한국어 교재마다 ‘-고’와 ‘-아/어서’가 제시되어 있는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본 조사의 정확성을 위하여, 초급 단계를 모두 수료한 후 중급 단계에 들어가는 예비 중급학습자 또는 이미 중급 단계에서 학습 중인 중·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정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조사 절차는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단계에서는 연결어미 가운데 ‘-고’와 ‘-아/어서’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을 조사할 것이다. 학습자들의 인식을 통하여 한국어 연결어미 학습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수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또한 학습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학습하고 싶은지에 대하여 밝힐 것이다. 1단계는 <표 3>과 같다.








<표 3> 설문조사 1단계 진행 방식

연번	질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자: 베트남인 한국어 중·고급 학습자 (총 100명: 중급 50명; 고급 50명)</li> <li>조사 방법: 서술하기, 적절한 것을 고르기.</li> </ul>	
<p>학습 현황 조사</p>	1.1. 한국어 등급?
	1.2. 초급 단계에서 사용했던 한국어교재?
	1.3. 연결어미를 학습할 때 어려운 점이 뭔가요?
	1.4. 연결어미의 의미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p>2. 수업 방식에 대한 인식조사</p>	1.5. ‘-고’를 ‘아/어서’로, ‘-아/어서’를 ‘-고’로 잘못 구별해서 사용한 적이 있나요?
	1.6. 사용했던 초급 교재에서 ‘-고’와 ‘-아/어서’의 의미에 대해 어떻게 제시했나요?
	1.7. ‘-고’는 순서의 의미를 갖는가?
	1.8. ‘-아/어서’는 순서의 의미를 갖는가?
<p>3. 학습 방법에 대한 인식조사</p>	1.9. 연결어미를 학습할 때, 선생님이 의미적 특성을 빼고 주어 일치 제약, 시제 제약.. 등을 설명해 줬나요?
	1.10. 학습할 때, 선생님이 의미가 비슷한 연결어미를 비교해줬나요?
	1.11. 유사한 의미를 갖는 연결어미들을 학습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서 사용했습니까?
<p>4. 연결어미 학습에 대한 요구조사</p>	1.12.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갖는 한 연결어미를 학습할 때 의미를 어떻게 제시하면 하면 이해하기가 더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1.13. 연결어미를 학습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학습하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단계에서는 주관식 쓰기 자료를 바탕으로 앞서 분석한 ‘-고’와 ‘-아/어

서'의 형태적, 통사적과 의미적 공통점과 차이점에 따라 베트남인 중급 학습자 15명, 고급 학습자 15명을 대상으로 학습자들의 사용 빈도를 조사하고 오류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설문 조사 방식에 따라 학습자의 오류 양상을 형태·의미·통사적 오류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통하여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어떤 유형의 오류를 자주 범하는지 파악할 것이다. 2단계의 쓰기 문항은 다음 <표 4>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4> 쓰기 문항 목록

문항 번호	쓰기 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자: 베트남인 한국어 중·고급 학습자 (총 30명: 중급 15명; 고급 15명)</li> <li>조사 방법: 제시한 주제에 따라 3-5문장으로 쓰기 (총 6개)</li> </ul>				
1	주말에 대해 3-5문장으로 써 주세요.				
2	어제 한 일에 대해 3-5문장으로 써 주세요.				
3	꿈/ 계획에 대해 3-5문장으로 써 주세요.				
4	"여러분이 어디에 여행을 했어요? 3-5문장으로 써 주세요.				
5	<p>"약국에 어떻게 가요?" 3-5문장으로 써 주세요.</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음식 이름</th> <th style="text-align: center;">만드는 방법</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불고기</td> <td>고기와 간장    고기→파, 마늘, 참기름, 간장→넣다    냉장고에 30분 넣고 기다리다    30분이 지나다→센 불로 빨리 익히다</td> </tr> </tbody> </table>	음식 이름	만드는 방법	불고기	고기와 간장    고기→파, 마늘, 참기름, 간장→넣다    냉장고에 30분 넣고 기다리다    30분이 지나다→센 불로 빨리 익히다
음식 이름	만드는 방법				
불고기	고기와 간장    고기→파, 마늘, 참기름, 간장→넣다    냉장고에 30분 넣고 기다리다    30분이 지나다→센 불로 빨리 익히다				
6	<p>불고기는 어떻게 만들어요? 요리 방법에 대해 3-5문장으로 써 주세요. (예: 불고기는 고기와 간장으로 만들어요. 먼저...)</p> <div style="display: flex; flex-wrap: wrap;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5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30px; margin: 5px;"></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5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30px; margin: 5px;"></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5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30px; margin: 5px;"></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5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30px; margin: 5px;"></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5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30px; margin: 5px;"></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5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30px; margin: 5px;"></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5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30px; margin: 5px;"></div> </div> </div>				

3단계에서 제시되어 있는 객관식 문항은 ‘-고’와 ‘아/어서’의 의미적 측면에서 두 항목의 대치 사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찰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객관식 문항은 괄호로 되어 있는 부분에 들어갈 표현을 고르는 문제 12개로 작성하였다. 3단계의 진행 방식은 다음 <표 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5> 설문조사 3단계 진행 방식

객관식 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베트남인 한국어 중·고급 학습자 (총 100명: 중 50명; 고 50명)</li> <li>• 조사 방법: 문법성 판단 객관식 문항 (총 12개) 예: 저는 아침을 (먹다)_학교에 가요. ① 먹고 ② 먹어서</li> </ul>

## 4.2. 조사 결과

### 4.2.1. 학습자의 인식 조사 결과

본 조사는 중급 학습자 50명, 고급 학습자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다음은 개별 문항의 결과에 대한 분석이다.

‘<1.2> 초급 단계에서 쓰던 한국어교재?’의 문항에 대해, 베트남인 학습자들에게 가장 보편적인 한국어 초급 교재는 서울대학교의 <서울대 한국어 1-2>,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1-2>, 연세대학교의 <연세 한국어 1-2>이었다. 응답결과를 지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1.2. 문항 응답률

1.2. 초급 단계에서 쓰던 한국어교재? (복수 응답 가능)			
문항 번호	답안	응답 수 (명)	백분율 (%)
1	서울대학교의 <서울대 한국어 1-2>	42	29.79%
2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1-2>	32	22.7%
3	연세대학교의 <연세 한국어 1-2>	20	14.18%
4	세종학당의 <세종한국어 1-4>	15	10.64%
5	고려대학교의 <재미있는 한국어 1-2>	9	6.38%
6	경희대학교의 <경희 한국어 I-II>	8	5.67%
7	기타	15	10.64%

‘<1.3> 연결어미를 학습할 때 어려운 점이 뭔가요?’의 문항에 대하여, 참여자들 중 68명(중급 27명, 고급 41명)이 의미가 비슷한 연결어미들이 매우 많으며 구별하는 것도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한국어와 달리, 베트남어는 연결어미가 발달하지 않았고 시제 제약, 주어 일치 제약과 같은 제한도 없기 때문에 연결어미를 활용할 때 어렵다고 느낀다는 학습자 수는 33명(중급 20명, 고급 13명)이었다. 어려운 점이 거의 없다고 응답한 학습자 15명(중급 1명, 고급 14명)은 대부분 고급 학습자임을 알 수 있었다. 응답률은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1.3. 문항 응답률

1.3. 연결어미를 학습할 때 어려운 점이 뭔가요? (복수 응답 가능)			
문항 번호	답안	응답 수 (명)	백분율 (%)
1	의미가 비슷한 연결어미들이 너무 많고 구별하는 것도 어렵다.	68 중: 27 고: 41	59.13%
2	한국어와 달리, 베트남어에서는 연결어미가 발달하지 않았고 시제 제약, 주어 일치 제약과 같은 제한도 없기 때문에 연결어미를 활용할 때 어렵다고 느낀다.	33 중: 20 고: 13	28.7%

3	어려운 점이 거의 없다.	15 중: 1 고: 14	12.17%
---	---------------	---------------------	--------

‘<1.4> 연결어미의 의미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의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참여자는 93명으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7명만이 연결어미들의 의미를 분명하게 구별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응답률은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1.4. 문항 응답률

1.4. 연결어미의 의미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문항 번호	답안	응답 수 (명)	백분율 (%)
1	네	93	93%
2	아니요	7	7%

‘<1.5> ‘-고’를 ‘아/어서’로, ‘-아/어서’를 ‘-고’로 잘못 구별해서 사용한 적이 있나요?’의 문항의 경우도 예상되는 응답 결과에서 벗어나지 않았는데, ‘-고’와 ‘-아/어서’를 헷갈리게 사용했다는 베트남 학습자 수가 많았으며 그 수는 79명이었다. 나머지 21명은 잘못 사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들은 대부분 고급 학습자라고 할 수 있다. 응답률은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1.5. 문항 응답률

1.5. ‘-고’를 ‘아/어서’로, ‘-아/어서’를 ‘-고’로 잘못 구별해서 사용한 적이 있나요?			
문항 번호	답안	응답 수 (명)	백분율 (%)
1	네	79	79%
2	아니요	21	21%

‘<1.6> 사용하던 초급 교재에서 ‘-고’와 ‘-아/어서’의 의미에 대해 어떻게



제시했나요?’의 문항에서, 참여자들 중에서 86명이 각 단원에서 의미를 따로 제시한다고 응답하였고 14명이 반대로 한 단원에 묶어서 제시한다고 하였다. 위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한국어 초급 교재들 중 서울대학교의 <서울대 한국어>, 연세대학교의 <연세 한국어> 및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교재를 고찰했을 때, <서울대 한국어>에서는 순서 연결어미 ‘-고’는 1A권 5과에 나온다. 한편 ‘-아/어서’의 경우 초급 1B 10과에서 제시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연세 한국어>에서도 연결어미의 개별적인 의미를 따로 제시하고 있다. ‘-고’의 의미를 제시할 때 1-1권 3과에서 순서를 제시하는데 ‘-아/어서’의 의미를 언급할 때는 1-2권 7과에서 의미들을 한꺼번에 제시하고 있다.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에서는 ‘-고’의 의미를 설명할 때 위의 교재에 비해 나누어 설명하지 않고 각 단원에서 의미를 따로 제시한다. 응답률은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1.6. 문항 응답률

1.6. 사용하던 초급 교재에서 ‘-고’와 ‘-아/어서’의 의미에 대해 어떻게 제시했나요?			
문항 번호	답안	응답 수 (명)	백분율 (%)
1	각 단원에서 의미를 따로 제시했다.	86	86%
2	한 단원에서 묶어서 제시했다.	14	14%

‘<1.7> ‘-고’는 순서의 의미를 갖는가?’ 질문에 대하여 ‘순서’ 의미를 가진다고 응답한 학습자 수는 57명(중급 25명; 고급 32명)으로 나타났으며 예상보다 ‘-고’의 의미에 대해 부족하게 이해고 있는 학습자 수가 많았다. 참여자 중에서 43명이 ‘-고’의 의미는 순서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그 중 25명은 중급 학습자이고 18명은 고급 학습자였다. 이는 위에서 살펴봤듯이 의미가 비슷한 연결어미들이 매우 많고 구별하는 것도 어렵거니와 한국어와 다르게 베트남어에서는 연결어미가 발달되어 있지 않고 시제

제약, 주어 일치 제약과 같은 제한도 없기 때문에 학습하는 과정에서 특히 초급 단계 수료 후 중급 단계 들어간 학습자들이 ‘-고’에 대해 제대로 이해 못 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응답률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 11> 1.7. 문항 응답률

1.7. ‘-고’는 순서의 의미를 갖는가?			
문항 번호	답안	응답 수 (명)	백분율 (%)
1	네	57 중: 25 고: 32	57%
3	아니요	43 중: 25 고: 18	43%

한편, ‘<1.8> ‘-아/어서’는 순서의 의미를 갖는가?’의 경우 ‘-고’보다 오류율이 낮아졌다. 구체적으로, 참여자들 중에서 91명(중급 43명, 고급 48명)이 ‘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고 9명(중급 7명, 고급 2명)이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응답률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 12> 1.8. 문항 응답률

1.8. ‘-아/어서’는 순서의 의미를 갖는가?			
문항 번호	답안	응답 수 (명)	백분율 (%)
1	네	91 중: 43 고: 48	(91%)
1	아니요	9 중: 7 고: 2	(9%)

‘<1.9> 연결어미를 학습할 때, 선생님이 의미적 특성을 빼고 주어 일치 제약, 시제 제약... 등을 설명해 줬나요?’의 문항의 경우, 56명이 학습 과정

에서 교사가 자세히 설명해주고 연습도 많이 시켰다고 하였으나 41명은 교사가 대충 설명해주고 연습도 많이 시키지 않았다고 대답하였다. 게다가 3명은 교사가 설명을 해주지 않아 스스로 알아보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을 통하여, 학습자가 연결어미를 제대로 학습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효율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응답률은 아래 <표 13>과 같다.

<표 13> 1.9. 문항 응답률

1.9. 연결어미를 학습할 때, 선생님이 의미적 특성을 빼고 주어 일치 제약, 시제 제약 등을 설명해 줬나요?			
문항 번호	답안	응답 수 (명)	백분율 (%)
1	자세히 설명해주고 연습도 많이 시켰습니다.	56	56%
2	대충하게 설명해주고 연습도 많이 시키지 않았습니니다.	41	41%
3	설명해주지 않고 알아서 알아보았습니다.	3	3%

위에서 언급했듯이, 다음 문항을 통해서도 베트남인 학습자에 대한 연결어미의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다. ‘<1.10> 학습할 때, 선생님이 의미가 비슷한 연결어미를 비교해줬나요?’의 문항에서, 교사가 자세히 비교해주고 연습도 많이 시켰다는 응답자 수는 48명인 반면에, 46명은 교사가 대충 비교해주고 연습도 많이 시키지 않았다고 하였다. 더욱이, 비슷한 연결어미들의 의미를 비교해주지 않고 알아서 알아보았다고 하는 응답자 수는 6명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현재 연결어미 교육 방안에 문제가 있으며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효율적인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응답률은 아래 <표 14>와 같다.

<표 14> 1.10. 문항 응답률

1.10. 학습할 때, 교사가 의미가 비슷한 연결어미를 비교해줬나요? 제약.. 등을 설명해 줬나요?			
문항 번호	답안	응답 수 (명)	백분율 (%)
1	네, 자세히 비교해주고 연습도 많이 시켰 습니다.	48	48%
2	대충하게 비교해주고 연습도 많이 시키지 않았습니다.	46	46%
3	비교해주지 않고 알아서 알아봤습니다.	6	6%

‘<1.11> 유사한 의미를 갖는 연결어미들을 학습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  
서 사용했습니까?’의 문항의 경우, 연결어미의 의미적 특성을 정확히 구별  
해서 차이점이 무엇인지 고려해서 사용했다는 응답자 수는 64명이었으며  
42명은 습관적으로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외국인이므로 상대방  
이 대충 이해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자세히 구별할 필요가 없으며, 아무거나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률은 아래  
<표 15>와 같다.

<표 15> 1.11. 문항 응답률

1.11. 유사한 의미를 갖는 연결어미들을 학습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서 사용했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문항 번호	답안	응답 수 (명)	백분율 (%)
1	어미의 의미적 특성을 정확히 구별해서 차 이점이 무엇인지 고려해서 사용했습니다.	64	45.07%
2	나는 외국인이니 상대방이 대충 이해하면 된다고 해서 자세히 구별 필요 없고 아무거 나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6	4.23%
3	습관처럼 사용했습니다. (예: ‘A’의 의미라	42	29.58%

	면 항상 'B' 어미를 사용한다.)		
4	초급 단계에서 배운 어미들만 사용하고 중 고급 단계에서 자주 쓰지 않는 비슷한 어미 를 피하는 경향이 있다.	28	19.72%
5	기타	2	1.4%

‘<1.12> 연결어미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요구의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갖는 하나의 연결어미를 학습할 때 의미를 어떻게 제시하면 하면 이해하기가 더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의 경우, 학습자의 의견은 반으로 나뉘었다. 100명 중에서 47명이 각 단원에서 의미를 따로 학습하는 것을 원하였고, 나머지 53명은 한 단원에서 여러 가지의 의미를 묶어서 학습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현재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에 따라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분석했듯이, 14명만이 한 단원에서 묶어서 제시하는 방식이 좋다고 하였는데 반대로 86명이 각 단원에서 의미를 따로 제시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현재 교육 방법이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기대하는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므로 더 적절한 다른 교수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응답률은 아래 <표 16>과 같다.

<표 16> 1.12. 문항 응답률

1.12.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갖는 한 연결어미를 학습할 때 의미를 어떻게 제시하면 하면 이해하기가 더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번호	답안	응답 수 (명)	백분율 (%)
1	각 단원에서 의미를 따로 학습하는 것이 좋다.	47	47%
2	한 단원에서 여러 가지의 의미를 묶어서 학습하는 것이 좋다.	53	53%

학습자의 학습 현황에 대한 마지막 문항인 <1.13>에서 학습자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면 연결어미 학습이 더 쉬운지 물었을 때, 교사가 양국 언어의 차이점을 강조하며,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예문을 통해 연결어미의 정확한 의미를 설명해주는 것이 효율적인 교육 방안이라고 응답한 응답자 수는 57명으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나머지 41명은 교사가 양국 언어의 공통점을 통해, 학습자가 쉽게 이해하고자 베트남어에서 대응 표현으로 설명해주면 이해하기 더 쉽다고 하였고 오류 분석을 통해 자주 범하는 오류를 강조하며 비슷한 연결어미의 차이를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고 응답한 응답자 수는 51명이었다. 응답률은 아래 <표 17>과 같다.

<표 17> 1.13. 문항 응답률

1.13. 연결어미를 학습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학습하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구 응답 가능)			
문항 번호	답안	응답 수 (명)	백분율 (%)
1	양국 언어의 공통점을 통하여, 학습자가 쉽게 이해하고자 베트남어에서 대응 표현으로 설명해준다.	41	27.52%
2	양국 언어의 차이점을 강조하며, 다양한 상황에 나타나는 예문을 통해 연결어미의 정확한 의미를 설명해준다.	57	38.26%
3	학습자의 오류 분석을 통해 자주 범하는 오류를 강조하며 비슷한 연결어미의 차이를 집중한다.	51	34.22%

#### 4.2.2. 주관식 문항 쓰기 결과

베트남인 중급 학습자 15명과 고급 학습자 15명을 대상으로 주관식 쓰기를 실시하였다. ‘주말 활동, 어제 일과, 여행, 계획/꿈, 길찾기, 요리법’을 주제로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하였다. 주관식 쓰기를 통해 총 385개 문장을

수집하였으며 작문에 사용된 연결어미는 총 25개이고 사용빈도는 총 503회였다. 조사 결과에 따른 연결어미 사용빈도는 아래의 <표 18>과 같다.

<표 18> 조사 결과에 따른 연결어미 사용빈도

연결어미	사용빈도 (횟수)		
	중급	고급	총
-고	86 (34.82%) <sup>5)</sup>	84 (32.81%) <sup>6)</sup>	170
-아/어서	98 (39.67%) <sup>7)</sup>	91 (35.55%) <sup>8)</sup>	189
-(으)면	17	27	44
-ㄴ/는데	5	5	10
-(으)ㄴ 후	4	8	12
-(으)러	-	6	6
-기 때문에	5	4	9
-기 위해	7	5	12
-기 전에	1	3	4
-도록	-	1	1
-(으)므로	-	1	1
-(으)려면	3	2	5
-(으)ㄴ 다음에	4	7	11
-다가	1	3	4
-(으)면서	3	2	5
-다 보니	-	1	1
-았/었더니	-	1	1
-아/어서 그런지	-	1	1
-고자	-	1	1
-지만	2	2	4
-(으)ㄴ 정도로	-	1	1
-자마자	8	-	8
-(으)ㄴ 만큼	1	-	1
-고 나서	1	-	1
-(으)ㄴ 뒤에	1	-	1
<b>합계</b>	<b>247</b>	<b>256</b>	<b>503</b>

5) 34.82% = (86 / 247) \* 100%

6) 32.81% = (84 / 256) \* 100%

7) 39.67% = (98 / 247) \* 100%

8) 35.55% = (91 / 256) \* 100%

중급과 고급의 2단계로 나누어 결과를 분석했는데, 중급 단계에서는 ‘-아/어서’가 39.67%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고’가 34.82%로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급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어서’가 35.55%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고’가 32.81%로 그 뒤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고’와 ‘-아/어서’의 사용빈도와 다른 연결어미의 사용빈도 간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베트남인 학습자들은 다양한 연결어미들 중에서 일부 한정된 연결어미만을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즉, ‘-고’와 ‘-아/어서’의 사용빈도가 전체 연결어미 사용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의 연결어미들에 대해서는 오류를 범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나 또 다른 이유로 인해 많이 사용하지 않고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위에서 학습자의 학습 방법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도 일부 추측할 수 있었다. 베트남인 학습자들은 유사한 의미를 갖는 연결어미들을 학습할 때 100명 중 42명이 습관처럼 사용한다고 하였다. ‘A’의 의미라면 항상 ‘B’ 어미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고’를 사용할 때 항상 ‘나열’의 의미로, ‘-아/어서’를 사용할 때 항상 ‘순서’ 의미로 사용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방법은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나타난다. 학습자들은 머릿속에서 각 연결어미의 의미를 미리 정하므로 대화를 할 때 더 빠르게 말할 수 있고 상대방도 일반적으로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상황이나 문맥과 상관없이 항상 하나의 연결어미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화나 문장의 의미가 변해져 어색해질 수도 있고 비문도 될 수 있는 경우도 많은 것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조사 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위에서 100명 중 28명이 답한 것처럼 베트남인 학습자들은 초급 단계에서 배운 연결어미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중급 단계 이상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연결어미



들의 사용 빈도가 여전히 낮다는 것은 중·고급 단계의 학습자들은 난이도가 높은 연결어미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대신에 유사한 의미를 가진 초급의 연결어미를 사용함을 의미한다. 그 결과 소통할 때 일부의 오류를 범하는 것을 피할 수 있지만 중·고급 단계에서 배운 연결어미들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잊어버리고 때때로 다시 사용할 때 모호하게 기억하므로 오류를 더 쉽게 범할 수 있다. 게다가 한국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고’와 ‘-아/어서’ 개별의 의미의 사용빈도는 아래의 <표 19>와 같다.

<표 19> ‘-고’와 ‘-아/어서’의 의미별 사용빈도

‘-고’의 의미	사용빈도 (횟수)	
	중급	고급
‘나열’ 의미	52	43
	95 (55.88%) <sup>9)</sup>	
‘순서’ 의미	34	41
	75 (44.12%) <sup>10)</sup>	
<b>총</b>	<b>170 (100%)</b>	
‘-아/어서’의 의미	중급	고급
	43	22
‘이유-원인’ 의미	65 (34.39%) <sup>11)</sup>	
‘순서’ 의미	55	69
	124 (65.61%) <sup>12)</sup>	
<b>총</b>	<b>189 (100%)</b>	

학습자가 사용한 ‘-고’의 기능 중 ‘나열’이 55.88%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순서’가 44.12%의 비율로 나타났다. 한편, ‘-아/어서’의 경우 ‘이유-원인’이 34.39%를 차지했으며 ‘순서’는 65.61%의 비율로 사용빈도가 가장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중급과 고급 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자면

9) 55.88% = (95 / 170) \* 100%

10) 44.12% = (75 / 170) \* 100%

11) 34.39% = (65 / 189) \* 100%

12) 65.61% = (124 / 189) \* 100%

급 단계에서 ‘-고’를 사용할 때 ‘순서’ 의미보다 ‘나열’ 의미로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아/어서’를 활용할 때는 ‘이유-원인’ 의미와 ‘순서’ 의미를 거의 비슷한 빈도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급 단계에서는 중급 단계와 사용빈도의 차이를 보인다. ‘고’의 ‘나열’ 의미와 ‘순서’의 사용 빈도는 거의 비슷한 반면에 ‘아/어서’를 사용할 때 ‘순서’의 의미는 ‘이유-원인’ 의미보다 3배 더 많이 사용되었다. 고급 단계에 올라가면서 연결어미의 종류가 확대되어 ‘-아/어서’의 ‘이유-원인’ 의미와 같은 다양한 다른 연결어미를 배우게 되고, 개별적인 의미 차이도 강조하여 교육받기 때문이다. 이처럼 문장을 만들 때도 고급 학습자들은 문맥에 따라 가장 적절한 연결어미를 골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고급 단계에서 ‘-아/어서’의 ‘이유-원인’ 의미의 사용빈도가 줄어든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항목의 순서를 살펴보는 데에 목적을 두고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순서의 의미 사용빈도와 오류 수에 집중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고’의 순서 의미를 가진 문장과 ‘-아/어서’의 순서 의미를 가진 문장의 사용 수, 오류 수와 오류 발생률은 아래 <표 20>과 같다.

<표 20> 쓰기 자료에 나타난 ‘-고’와 ‘-아/어서’의 순서 의미 사용 양상

		사용 수	오류 수	오류 발생률 <sup>13)</sup>
‘-고’의 순서	중급	34	18	52.94%
	고급	41	11	26.83%
	<b>총</b>	<b>75</b>	<b>29</b>	<b>38.67%</b>
‘-아/어서’의 순서	중급	55	21	38.18%
	고급	69	9	13.04%
	<b>총</b>	<b>124</b>	<b>30</b>	<b>24.19%</b>

위의 표를 보면 ‘-고’와 ‘-아/어서’는 모두 고빈도 연결어미이며 오류빈

13) 오류 발생률(%) = 오류 수 / 사용 수 x 100%

도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학습자 오류율은 ‘-아/어서’보다는 ‘-고’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한국어의 연결어미가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과 결합된 상태로 표시되는 것과 달리, 베트남어의 경우 접속사의 본래 형태 그대로 문장에서 사용되므로 베트남인 학습자 입장에서 복잡하다고 여기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게다가 학습자가 베트남어로 번역 시 하나의 의미로 해석되는 접속사도 한국어에서는 많은 형태의 항목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인해 혼란을 겪는 것도 원인으로 보인다.

위의 결과에서 ‘-고’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 ‘-아/어서’로, 또는 반대로 ‘-아/어서’를 사용해야 하는데 ‘-고’로 사용해서 범한 오류율을 볼 때, 중급 단계에서 ‘-고’의 순서 의미를 34회 사용한 사례 중에서 비문이거나 의미가 어색해진 문장을 만든 오류 수는 18개로 52.94%를 차지하였다. 이처럼 오류율이 높은 것은 초급단계에서부터 ‘-고’의 의미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나타낸다. 학습자 인식 조사 결과에서도 살펴봤듯이, 100명 중에 43명이 ‘-고’는 순서의 의미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고급 단계에 올라가면서 오류율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총 41회의 사용 중 오류가 11회로 26.83%를 차지하였다.

다음 <표 21>에서는 형태·통사·의미적 오류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오류의 빈도에 따라 연결어미 개별의 오류의 예문과 같이 제시한다.

<표 21> ‘-고’와 ‘-아/어서’의 순서 의미 오류 유형 및 빈도수

		오류 빈도 (회)	오류율14) (%)
형태적 오류	중급	2	5.13%
	고급	0	0%
	<b>총</b>	<b>2</b>	<b>3.39%</b>
통사적 오류15)	중급	4	10.26%
	고급	0	0%
	<b>총</b>	<b>4</b>	<b>6.78%</b>
의미적 오류	중급	33	84.61%

	고급	20	100%
	합계	53	89.83%
총		59	100%

59개의 오류 중에서 형태적 오류는 2건으로 3.39%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베트남인 학습자들은 ‘-고’와 ‘-아/어서’의 형태적 측면에 있어서는 그다지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습자들이 순서 ‘-고’와 ‘-아/어서’를 활용할 때 동사만 결합하여야 시간적으로 앞 문장의 행위가 먼저 일어난 후 뒤 문장의 행위가 일어나는 문장을 이루어질 수 있는 규칙을 잘 알고 활용하고 있었다. 만약 동사나 형용사를 결합할 때 적절한 형태를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형태를 쓰는 오류를 범하더라도 그것은 이해도가 부족해서 오류가 생기기보다는 그저 맞춤법 측면에 실수한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통사적 오류는 4개로 6.78%를 차지했다. 통사적 오류의 경우 형태적 오류보다 더 많고 여전히 중급 학습자가 주로 오류를 범하며 고급 단계에서 오류를 범하는 경우는 보이지 않았다. 한편 의미적 오류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또한 초급 단계에서 ‘고’와 ‘-아/어서’의 의미 차이 측면에 대한 교육 방안에 문제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는 각 연결어미 오류의 유형을 예문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4.2.2.1. 형태적 오류

학습자 작문 분석 결과, 형태적 오류의 예문은 다음과 같다.

(22)ㄱ. 나중에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바로 한국 회사에 \*취업고(취업하

14) 오류율(%) = ( 오류 빈도 / 오류 수 ) x 100%

15) 여기서 통계된 통사적 오류는 제약 관련 오류만 계산했고 자- 타동사 관련 오류는 제외이다.

- 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 거예요.  
 나. 어제 일찍 \*이러나서(일어나서✓) 과제를 했다.

(22ㄱ)의 예문을 보면, 동사 ‘취업하다’와 ‘-고’를 결합하려면 ‘취업하고’가 되어야 옳은 것인데 여기에서 ‘-하-’가 빠지고 ‘취업고’만 작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오류는 1건만 존재하며 빈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는 ‘-고’가 용언 어간과 직접 결합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규칙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오류를 범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실수로 인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46나)의 경우는 발음대로 쓴 것으로 동사 ‘일어나다’가 ‘-아/어서’와 결합할 때 ‘일어나서’가 되는데 연음 규칙 때문에 발음할 때 ‘이러나서’가 된다. 이러한 오류가 발생한 원인도 학습자의 실수 때문에 맞춤법이 틀린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4.2.2.2. 통사적 오류<sup>16)</sup>

##### (1) 제약 관련 오류

통사적으로 보면, 문장의 종류의 오류가 없는 것을 통해 학습자들은 명령문이나 청유문에서도 순서를 갖는 ‘-고’와 ‘-아/어서’를 잘 활용하고 주어 일치 규칙도 제대로 인식하여 오류를 범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시제 제약에 대하여는 인식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 (23) ㄱ. 어제 아침을 \*먹었고(먹고✓) 회사에 다녔어요.  
 나. 숙제를 \*마쳤고(마치고✓) 알바하러 갔습니다.

16) 부정 표현이 들어가는 문장은 통사적이나 화용문 측면에 따라 비문이나 정문이 될 수 있으므로 본문은 통사적 오류 부분에서 ‘부정문 제약’에 관련한 오류를 살펴보지 않기로 한다.

ㄷ. 아침에 \*일어났어서(일어나서✓) 집을 청소했어요.

ㄹ. 30분이 \*지났고(지나서✓) 팬에 센 불로 튀기면 빨리 익혀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와 ‘-아/어서’는 과거를 나타내는 어미 ‘-았/었-’이나 미래, 의지, 추측을 나타내는 어미 ‘-겠-’ 등과 함께 쓸 수 없고 이에 해당하는 어미가 뒷 문장에만 오고 앞 문장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23)의 예문을 살펴보면 시제 제약 규칙에 대한 오류를 범했다. (23ㄱ)과 (23ㄴ)에서는 선행절에 ‘-었’이 오기 때문에 ‘순서’가 없어지고 대신에 선·후행절의 두 행위를 시간적 요소 없이 대등적으로 나열해주고 있다. (23ㄴ)에서는 앞 문장에 과거 시제가 나와서 ‘순서’ 의미가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문장 자체가 비문이 되었다. (23ㄷ)에서는 시제 제약에 대한 오류와 함께 의미적 측면의 오류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 (2) 자·타동사 관련 오류

위에 언급한 통사적 오류 외에도 다음과 같이 자동사나 타동사와 관련된 오류도 보인다. 먼저는 ‘-고’의 오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24) ㄱ. 첫 번째 사거리를 \*지나고(지나서✓) 직진하세요.

ㄴ. 그리고 집에 \*들어가고(들어가서✓) 잔다.

ㄷ. 그 다음에는 \*외출하고(외출해서✓) 산책했어요.

ㄹ. 똑바로 \*가고(가서✓)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가세요.

ㅁ. 버스정류장에서 \*내리고(내려서✓) 약국까지 5분 더 걸어가면 돼요.

ㅂ. 수업 끝난 후에 점심을 \*요리하고(요리해서✓) 먹었어요.

(24ㄱ)부터 (24ㅁ)까지의 예문의 서술어는 모두 자동사이기 때문에 ‘-아/어서’를 사용해야 하고 (24ㅂ)의 예문의 서술어는 타동사이지만 앞 문장의

‘점심’이라는 목적어가 뒷 문장에서 되풀이해서 쓸 수 있는 경우이므로 ‘-고’가 아닌 ‘-아/어서’를 사용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베트남인 학습자가 사용한 순서의 의미를 갖는 ‘-고’의 오류 중에서 주로 ‘가다, 오다, 들어가다, 내리다, 일어나다’ 등과 같은 이동을 나타내는 자동사에서 오류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아/어서’의 오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 (25) 가. 어제 엄마한테 \*전화해서(전화하고✓) 왔어요.
- 나. 비행기를 \*타서(타고✓) 제주도에 왔어요.
- 다. 먼저 고기에 파, 마늘, 참기름, 간장을 적당한 비율로 \*넣어서(넣고✓) 냉장고에 30분 동안 넣으세요.
- 르. 아침을 \*먹어서(먹고✓) 학교에 왔어요.

(25)의 예문들에서 동사가 각각 다른 목적을 지니므로 ‘-고’로 연결하면 정문이 되지만 ‘-아/어서’로 연결하면 비문이 된다. ‘-아/어서’를 사용한 오류 중에서는 ‘-고’와 달리 ‘타다, 하다, 넣다, 먹다’와 같은 타동사에서 높은 오류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고’에서는 대부분 자동사와 관련한 오류가 많이 발생하며 ‘-아/어서’에서는 타동사와 관련한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에도 분석했듯이, 자동사를 결합하는지 타동사를 결합하는지에 따라, 그리고 선후의 목적어의 중복 여부에 따라 ‘-고’나 ‘-아/어서’를 선택하는 것이 항상 정문의 조건인 것은 아니며, 선후의 지속성 요소도 고려하여야 한다. 게다가 두 연결어미는 초급 단계에서 배우게 되는 연결어미이므로 실은 초급 학습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주어야 하는지도 어려운 일이다. 자동사나 타동사에 대한 규칙을 알려주는 한국어 교재도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24)과 (25)과 같은 예문들은 통사적 오류라고

보지 않는 입장을 취하겠다.

#### 4.2.2.3. 의미적 오류

의미적 오류율이 높은 점을 통해 중·고급 학습자들이 선후 관계를 파악하여 ‘-고’를 사용하는지 ‘-아/어서’를 사용하는지 선택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장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고’와 ‘-아/어서’는 선후 관계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첫째, 앞뒤 문장 사이의 지속성에 관한 논의가 있다. ‘-고’는 선행절에 나타나는 행동이 끝난 후에 후행절에 나타나는 행동이 일어나는 경우에 사용되고 반면에, ‘-아/어서’는 선행절에 나타나는 행동이 계속 지속되는 상황에서 후행절에 나타나는 행동이 일어나는 경우에 사용된다. 둘째, 순서를 나타내는 ‘-아/어서’와 ‘-고’에 대한 논의로는 지속성에 관한 논의 외에도 상관성에 관한 논의가 있다. ‘-어서’는 선·후행절의 사건이 갖는 연관성이 강할 때 쓰고 반대의 경우 ‘-고’를 쓴다.

본 연구 조사 결과를 살펴본 결과 의미적 오류 중에서 중급과 고급 단계에서 모두 상관성 관련 오류 빈도 및 오류율이 지속성 관련 오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들이 선후관계의 상관성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여 ‘순서’가 아닌 ‘나열’ 관계라고 판단하여 사용하기 때문이다. 위의 학습자 인식 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참여자들 중에서 43명이 ‘-고’의 의미는 그저 ‘나열’의 의미만 가진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중 25명은 중급 학습자이고 17명은 고급 학습자이다. ‘-고’는 ‘순서’의 의미만 나타낸다고 한 응답자 수는 6명인데 이중 5명이 중급 학습자이고 1명이 고급 학습자이다. 한편, 학습자들 중에서 83명이 ‘-아/어서’는 ‘이유’와 ‘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고 9명은 ‘이유’의 의미만 가진다고 하였으며, 8명은 ‘순서’의 의미만 가진다고 하였다. 중급 단계에서 상관성과 관련한 오류빈도는 21회로 63.64%이며 지속성 관련 오류빈도는 이보다 낮은데 12회로 나타났고 36.36%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급 단계에서도 거의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관성 관련 오류빈도는 14회로 70%를 차지하고 지속성 관련 오류빈도는 6건으로 30%를 차지했다. 그리고 중급 단계에서 고급 단계까지 올라가면서 오류율이 절반 가까이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상관성 및 지속성 관련 오류 수와 오류 발생률은 아래 <표 22>과 같다.

<표 22> 상관성 및 지속성 관련 오류 수와 오류 발생률

의미적 오류	오류빈도(회) 오류율 (%)	
	중급	고급
상관성	21 - 63.64%	14 - 70%
지속성	12 - 36.36%	6 - 30%
<b>총</b>	<b>33 - 100%</b>	<b>20 - 100%</b>

먼저 선·후행절의 상관성에 따라 두 연결어미의 오류 유형을 알아보고자 한다. ‘-고’를 ‘-아/어서’로, 또는 ‘-아/어서’를 ‘-고’로 대치하는 의미적 오류 예문은 다음과 같다.

- (26) 가. 그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도 \*참여하고(참여해서✓) 좋은 경험들을 쌓았어요.
- 나. 약국에 가려고 하면 \*직진하고(직진해서✓) 첫 번째 삼거리에서 왼쪽으로 가세요.
- 다. 한국어를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공부하고✓) 유학을 갔어요.
- 르. 토픽 시험 결과를 \*받아서(받고✓) 석사과정을 신청하려고 해요.

위의 예문들을 보면, ‘-아/어서’를 ‘-고’로 대치한 의미적 오류는 대부분 자동사가 서술어인 문장에서의 상관성과 관련된다. 예문 (26가, 나)는 ‘-아/어서’를 사용해야 자연스러운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베트남인 학습자는 ‘-고’를 사용하고 있다. (26가)처럼 선행절의 ‘다양한 활동을 참여하는’ 행위가

만약 나타나지 않는다면 후행절의 ‘좋은 경험들을 쌓는’ 행위가 일어나지 못하고 이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사이에 상관성이 강함을 인식할 수 있다. (26ㄴ)도 마찬가지로 ‘직진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삼거리에서 왼쪽으로 가는’ 행위가 이어질 수 없다. 그러나 베트남인 학습자는 ‘다양한 활동을 참여하는’ 것과 ‘좋은 경험들을 쌓는’ 것, ‘직진하는’ 것과 ‘삼거리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은 관계없이 그저 단순히 순서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라고 파악하게 되고 선후 관계의 밀접한 상관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이러한 오류를 일으킨 것이다. 한편 (26ㄷ, ㄹ)처럼 ‘-고’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인데 ‘-아/어서’로 대치하여 어색해지는 경우도 있다. (26ㄷ)에서는 학습자가 ‘한국어를 공부하는’ 행동과 ‘유학을 가는’ 행동의 관계가 매우 긴밀하고 따로 떨어질 수 없다고 판단해서 ‘-아/어서’를 선택하여 문장을 만들었다. 그러나 실은 ‘한국어를 공부하는’ 행동이 일어나지 않아도 ‘유학을 가는’ 행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며 원래 두 행동의 사이에 상관성이 약함을 보인다. (26ㄹ)에서도 학습자들이 토픽 시험 결과를 받아야 석사과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파악하여 ‘-아/어서’를 사용하였다.

‘-고’와 ‘-아/어서’의 순서 의미에 대한 차이 중 앞뒤 문장 사이의 지속성 여부에 따라 ‘-고’를 사용하는지 ‘-아/어서’를 사용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다음은 베트남인 학습자의 선·후행절의 지속성을 잘못 판단함으로 인하여 오류를 일으킨 예문들이다.

- (27) ㄱ. 먹은 후에 친구를 \*만나고(만나서✓) 커피를 같이 마셨어요.  
 ㄴ. 주말에는 늦게 \*일어나고(일어나서✓) 밥을 먹다.  
 ㄷ. 한복을 \*입어서(입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ㄹ. 어제 엄마한테 \*전화해서(전화하고✓) 잤어요.

위의 예문들을 보면, ‘-아/어서’를 ‘-고’로 대치하는 의미적 오류는 대부

분 자동사가 사용된 문장이며 지속성과 관련된 경우이다. 앞서 분석했듯이, 앞의 행위가 끝난 후 그 다음 행위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고’를 사용하고, 앞의 행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그 다음 행위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아/어서’가 사용된다. (51ㄱ)의 예문을 보면, 베트남인 학습자들은 ‘친구를 만나는’ 행동이 이미 완전히 끝난 후 ‘커피를 같이 마시는’ 행동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행동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27ㄴ)에서도 ‘일어나는’ 행위를 마친 상태에서 ‘밥을 먹는’ 행위가 발생했다고 보았지만 ‘일어나는’ 행위가 철저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상황에서는 ‘-고’가 아닌 ‘-아/어서’를 선택하는 것이 규칙상 맞는 것이다. 앞의 행동이 끝나는데도 결과로 남아 있는 관계에 뒤의 행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어서’의 특성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27ㄷ)예문에서는 ‘입다’와 같은 동사는 상태의 지속의 의미 기능을 담당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한 번만 하더라도 그 상태가 유지된다. 그러므로 ‘입다, 끼다, 쓰다, 신다’와 같은 동사와 결합할 때는 ‘-아/어서’의 ‘순서’와 유사하기 때문에 ‘-아/어서’처럼 선후에 순서를 느낄 수가 있다. 그러나 ‘행동의 남아 있는 상태 유지’의 의미를 포함하는 ‘-아/어서’를 사용할 수 없고 ‘행동 완료’의 의미를 가진 ‘-고’를 사용하여야 자연스럽다. 게다가 베트남어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접속사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습득할 때 한국어로 번역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헷갈려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27ㄷ)의 경우에서도 보다시피, ‘전화하는’ 행동이 완전히 끝나므로 ‘자는’ 행동이 그저 순서적으로 ‘전화하는’ 행동의 다음에 나타나는 행동이므로 ‘-고’와 함께 결합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태적 및 통사적 오류보다 의미적 오류가 훨씬 많으므로 다음 절에서는 형태나 통사적 오류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자주 범하는 의미적 오류 중 대치 오류에 집중하여

분석할 것이고 오류의 원인을 살필 것이다.

#### 4.2.3. 객관식 문항 조사 결과

본 조사는 중급 학습자 50명, 고급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베트남인 중·고급 학습자들은 ‘-고’와 ‘-아/어서’에 나타나는 비슷한 의미 요소에 차이점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두 항목을 혼동하여 활용하기 때문에 어색한 문장이나 비문법적인 문장을 생성한다. 베트남인 중·고급 학습자들의 의미적 오류율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24>과 같다.

<표 23> 베트남인 중·고급 학습자의 연결어미 의미적 오류 양상

문항 번호	객관식 문항	정답 수 (정답률) (100명)		오답 수 (오류률) (100명)	
		중급 (50명)	고급 (50명)	중급 (50%)	고급 (50%)
1	저는 아침을 (먹다)_학교에 가요. ① 먹고(✓) ② 먹어서	73 (73%)		27 (27%)	
		30 (60%)	43 (86%)	20 (40%)	7 (14%)
2	잠실역에서 (내리다)_ 3번 출구로 나갔어요. ① 내리고 ② 내려서(✓)	73 (73%)		27 (27%)	
		33 (66%)	40 (80%)	17 (34%)	10 (20%)
3	옷을 (벗다)_ 누웠어요. ① 벗고(✓) ② 벗어서	73 (73%)		27 (27%)	
		33 (66%)	40 (80%)	17 (34%)	10 (20%)
4	옷을 (벗다)_ 벽에 걸었어요. ① 벗고 ② 벗어서(✓)	63 (63%)		37 (37%)	
		30 (60%)	33 (66%)	20 (40%)	17 (34%)
5	딸기를 (씻다)_ 먹어요. ① 씻고 ② 씻어서(✓)	65 (65%)		35 (35%)	
		31 (62%)	34 (68%)	19 (38%)	16 (32%)
6	손을 (씻다)_ 과일을 먹어요. ① 씻고(✓) ② 씻어서	69 (69%)		31 (31%)	
		33	36	17	14

		(66%)	(72%)	(34%)	(28%)
7	마스크를 (쓰다)___ 버스를 타세요. ① 쓰고(✓) ② 써서	80 (80%)		20 (20%)	
		38 (76%)	42 (84%)	12 (24%)	8 (16%)
8	수영복을 (입다)___ 수영을 해요. ① 입고(✓) ② 입어서	56 (56%)		44 (44%)	
		26 (52%)	30 (60%)	24 (48%)	20 (40%)
9	음악회에 (참여하다)___ 상을 받았어요. ① 참여하고 ② 참여해서(✓)	66 (66%)		34 (34%)	
		30 (60%)	36 (72%)	20 (40%)	14 (28%)
10	큰 소리를 (내다)___ 발음 연습을 해요 ① 내고 ② 내서(✓)	55 (55%)		45 (45%)	
		26 (52%)	29 (58%)	24 (48%)	21 (42%)
11	학교에 버스를 (타다)___ 학교에 가요 ① 타고(✓) ② 타서	71 (71%)		29 (29%)	
		33 (66%)	38 (76%)	17 (34%)	12 (24%)
12	회사에 (걸다)___ 갔어요. ① 걸고 ② 걸어서(✓)	92 (92%)		8 (8%)	
		44 (88%)	48 (96%)	6 (12%)	2 (4%)

전체적으로 객관식 문항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른 문항보다 (10)번 문항의 오답 수가 45명 대응 45%로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중급 응답자는 24명이고 고급 응답자는 21명이다.

(28) 10. 큰 소리를 \*내고(내서✓) 발음 연습을 해요.

예문 (28)은 객관식 설문 문항 10번에 해당하는 예문으로, 후행절의 ‘발음 연습을 하다’가 이루어지려면 선행절의 ‘소리를 내다’가 있어야 하므로 ‘-아/어서’를 선택해야 한다. ‘내다’가 후행절의 ‘발음을 연습하다’에 비하여 먼저 일어나지만 두 행동이 거의 동시에 시작되며 같은 시간 내에 일어난다. 또한 베트남어로 번역하면 선행절과 후행절의 가운데 접속사가 없는 것

이 가장 자연스럽게 알맞는 문장이다. 그런데 ‘동시’로서의 ‘-고’의 시간 관계 의미와 비슷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쉽게 혼동하여 ‘-고’를 선택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문장의 난이도가 높아서 오답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입다, 쓰다, 들다’와 같은 행위 유지 타동사 관련 오류도 높게 나타났다.

(29) 8. 수영복을 \*입어서(입고✓) 수영을 해요.

예문 (29)는 객관식 설문 문항 8번에 해당하는 경우로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수영을 하려면 수영복을 입어야 하여 두 행위 간의 상관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오류가 생긴 것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입는’ 행동이 아직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입은’ 행동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입은’ 행동이 남아 있는 상태만 유지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오류를 범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래의 예문 (30)과 같은 상황에서의 오류율을 검증하기 위하여 두 문장에서 동일한 동사를 사용하였다.

(30) ㄱ. 3. 옷을 \*벗어서(벗고✓) 누웠어요.

ㄴ. 4. 옷을 \*벗고(벗어서✓)벽에 걸었어요.

(31) ㄱ. 5. 딸기를 (씻다)\_\_\_ 먹어요.

ㄴ. 6. 손을 (씻다)\_\_\_ 과일을 먹어요.

(30ㄱ)은 객관식 설문 문항 3번에 해당하는 예문으로, 27명의 학습자가 ‘-아/어서’를 사용하여 27%의 오류율을 보였으며 (30ㄴ)은 객관식 설문 문항 4번에 해당하는 예문으로, (30ㄱ)와 같은 ‘벗다’ 동사를 사용했으나 37명

이 ‘-고’를 선택하여 오류가 생긴 것으로 오류율은 37%로 (30ㄱ)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동일한 용언을 사용했음에도 오류율에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학생들에게 자동사와 타동사만으로 ‘-고’나 ‘-아/어서’를 구분하여 사용하면 안 되며, 반드시 선후관계의 상관성과 지속성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함을 분명하게 교육해야 함을 의미한다. 예문 (31)도 마찬가지로 (31ㄱ)은 객관식 설문 문항 5번에 해당하는 예문이며 (31ㄴ)은 객관식 설문 문항 6번에 해당하는 예문에서 동일한 ‘씻다’ 동사를 사용했으나 (31ㄱ)에서는 35%의 오류를 나타냈고 (31ㄴ)에서는 오류율이 31%인 것으로 나타났다. ‘씻어서 먹다’보다 ‘손을 씻고 먹다’와 같은 ‘씻다’와 ‘-고’가 결합되는 문장을 더 많이 사용하거나 보는 기회가 많아서 자연스럽게 ‘-고’를 선택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에서도 (31ㄴ)의 오류율이 (31ㄱ)보다 낮은 이유라고 추측할 수 있다.

총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92명이 정답을 선택하여 92%의 정답률을 보인 12번 문제가 가장 정답률이 높았다. 중급 단계에서는 44명이 정답을 선택하였고 고급 단계에서도 48명이 정답을 선택하여 96%의 정답률을 보였다.

(32) 12. 회사에 \*걸고(걸어서✓) 갔어요.

(32)는 객관식 설문문항 12번에 해당하는 예문으로 오류율이 8%로 적게 나타났다. 이것은 학습자들이 초급 단계부터 ‘걸어서-’의 형식을 배우게 되어 이러한 표현에 익숙하기 때문으로 예측된다. 위에서 언급한 보편적인 초급 교재들을 살펴봤을 때, 학습자들이 ‘-을/를 타고 가다/오다’와 ‘걸어서 가다/오다’의 형식을 새 단어처럼 학습한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이 이러한 표현을 습관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오류 수가 적게 나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본 연구 결과를 보면, 중급 단계에서의 오답 건이 고급 단계보다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고급 단계에서 오답 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문문항 10번의 경우 오답 수가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때 고급 단계에서도 여전히 오답 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앞의 절에서 제시한 것처럼, 의미적 차원에서 선·후행절의 상과성에 따라, 지속성이나 비지속성에 따라, 그리고 자동사나 타동사와 같이 같은 목적어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고’나 ‘-아/어서’를 선택해서 사용해야 한다. 베트남어는 연결어미의 형태가 한국어의 연결어미처럼 동사의 어간과 결합된 상태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의 접속사처럼 본래 형태를 변형없이 그대로 쓰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고’와 ‘-아/어서’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 게다가 한국어에서 유사한 의미를 가진 연결어미들이 다양한 편이지만 베트남어에서는 하나의 의미로 표시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어떤 연결어미를 사용해야, 그리고 이 연결어미는 어떤 상황에서 사용해야 적절한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

### 4.3. 오류 원인

앞서 제시한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연결어미 ‘-고’와 ‘-아/어서’의 사용 빈도와 오류율 분석 결과를 볼 때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연결어미 특히 ‘-고’와 ‘-아/어서’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ran Chau Thuy(2010)에서는 베트남 학습자가 한국어 연결어미의 문법 형태를 학습 시 자신의 모국어에서 비슷한 형태를 가진 유사한 의미를 찾는 경향이 있으나 한국어 연결어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므로 한국어 연결어미의 형태가 자신 모국어의 문법 형태와 일치하는지 구분하지 못하고 한국어 연결어미의 통사적 제약 조건도 파악하지 못하여 오류



를 범하게 된다고 하였다.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은 학습자마다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오류 원인을 나누고자 한다.

첫째, 한국어에서 ‘-고’와 ‘-아/어서’를 구분하여 선후관계의 상관성, 지속성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하나,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베트남어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rôi’와 같은 접속사로만 사용하여 선후의 ‘순서’ 관계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류가 나타난다.

(33) ㄱ. 편지를 쓰고 우체국에 간다.

Viết thư rôi đến thư viện.

(쓰다/ 편지/ 고/ 가다/ 우체국.)

ㄴ. 편지를 써서 보낸다.

Viết thư rôi gửi.

(쓰다/ 편지/ 어서/ 보낸다.)

위의 예문 (33)을 보면, (33ㄱ)의 경우는 선후 관계의 상관성이 약하므로 ‘-고’를 사용하고, (33ㄴ)의 경우는 선후 관계가 밀접하기에 ‘-아/어서’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어에서는 선후 관계와 관련 없이 같은 접속사 ‘rôi’로 선·후행절을 연결한다.

둘째, 한국어에서 연결어미가 생략될 수 없는 부분에 비하여, 베트남어에서는 접속사가 생략 가능한 경우가 많다.

(34) ㄱ.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간다.

Đi xe đạp (rôi) về nhà.

(타다/ 자전거/ (고)/ 가다/ 집.)

ㄴ. 집에 걸어서 간다.

Bước (rồi) đi về nhà.  
(걷다/ (-어서)/ 가다/ 집.)

한국어의 복문에서 연결어미는 필수 요소이다. 연결어미는 선·후행절의 행동들을 연결해주는 부분이고 선·후행절의 관계와 대응하는 연결어미가 개별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문장에서 연결어미가 빠지면 문장 자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베트남어에서는 특정한 상황에서 연결어미 역할을 맡는 접속사가 없어도 문장의 의미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 예문 (34)은 베트남어에서 문장에 접속사가 없는 경우이다. 한국어에서는 청자가 문장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반드시 문장의 문맥에 따라 ‘-고’나 ‘-아/어서’ 하나를 고려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베트남어의 경우 접속사를 사용하지 않아도 ‘순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이는 주로 문장의 ‘수단-방법’의 의미를 표현할 때 베트남어에서는 접속사를 생략하는데도 청자가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고’와 ‘-아/어서’의 순서 의미를 설명할 때, 교사가 완전히 학습자의 모어를 중심으로 설명하면 안 되고 반드시 베트남어 접속사와 한국어의 연결어미의 차이점을 지적하고 한국어로 표현하는 예문들을 통해 두 항목의 의미 차이점을 이해시켜야 바람직하다.

셋째, 한국어에서 순서 의미를 갖는 ‘-고’와 ‘-아/어서’는 선행절에서 시제를 표현하는 ‘-았/었-’ 및 ‘-겠-’과 결합하지 않으며 후행절에서만 시제를 나타내는 시제 제약 조건이 존재한다. 한국어에서 시제를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시제가 없이 말한다면 화자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의 의미가 달라지기 쉽기 때문이다.

- (35) ㄱ. \*은행에 갔어서 통장을 만들었다.  
ㄴ. \*은행에 가겠어서 통장을 만들겠다.

(36) ㄱ. \*공부를 했고 잤다.

ㄴ. \*공부를 하겠고 자겠다.

베트남인 학습자들은 발화할 때나 서술할 때 베트남어의 접속사와 한국어의 연결어미의 차이의 영향을 벗어나야 할 뿐만 아니라 순서를 나타내는 ‘-고’와 ‘-아/어서’의 통사적 시제 제약 요소도 고려하여 활용해야 하므로 위에서 오류 분석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예문 (35)과 (36)처럼 혼동하는 경우를 보인다. 이러한 오류 형성 원인의 하나는 위에서 수업 방식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통해 실제 학습자들이 받고 있는 교육 방안의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다. 조사 결과 대상자의 100명 중 41명(41%)는 학습하는 과정에서 연결어미와 관련 제약 조건들을 개략적인 설명만 들었으며 연습도 많이 하지 못했다고 답하였다. 따라서 교사가 교육할 때 두 항목의 제약 조건들을 자세히 제시하여야 학습자들의 오류율을 줄일 수 있다.

넷째, 학습자들이 모어 간접 요소 외에, 순서를 갖는 ‘-고’와 ‘-아/어서’ 자체의 의미적 차이점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선·후행절의 관계와 관련한 상관성과 지속성에 대해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37) ㄱ. 그래서 2시간 동안 계속 \*누워서(눅고✓) 울었어요.

ㄴ. 약국에 가려고 하면 \*직진하고(직진해서✓) 첫 번째 삼거리에서 왼쪽으로 가세요.

(38) ㄱ. 어제 엄마한테 \*전화해서(전화하고✓) 잤어요.

ㄴ. 먹은 후에 친구를 \*만나고(만나서✓) 커피를 같이 마셨어요.

위의 예문 (37)과 (38)은 베트남인 학습자가 일으킨 의미적 오류이다. 한국어에서 ‘-고’와 ‘-아/어서’는 모두 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의미적 차원에서 선후 관계의 지속성 및 상관성에 따라 용법이 다르다. (37ㄱ)과

같이 선행절에 나오는 행동이 후행절에 나오는 행동과 상관이 없으면 ‘-고’를 사용하는 반면에, (37ㄴ)처럼 선·후행절의 관계가 친밀한 경우에는 ‘-아/어서’를 사용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38ㄱ)에서는 앞 행동이 완전히 끝난 후 뒤 행동이 이어지므로 ‘-고’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38ㄴ)예문에서는 앞 행동이 지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뒤 행동이 이어지기에 ‘-아/어서’를 사용해야 한다.

학습자들은 문장의 선·후행절의 복잡한 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여 ‘-고’가 쓰일 자리에서 ‘-아/어서’를 사용하고, ‘-아/어서’가 쓰일 자리에서 ‘-고’를 사용하는 오류를 흔히 보인다. 게다가 초급 단계에서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중급 또는 고급 단계로 진급하더라도 연결어미에 관한 오류율이 여전히 낮아지지 않는다. 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46%의 응답자가 학습 시 의미가 같은 연결어미들의 차이점에 대한 비교와 연습 지도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로 인해 의미가 비슷한 연결어미들을 구별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오류를 자주 범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순서 ‘-고’와 ‘-아/어서’의 차이에 대한 교육 방안에 문제가 존재하며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더욱 효율적인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5. 순서를 나타내는 ‘-고’와 ‘-아/어서’의 교육 방안

4장에서 설문조사를 통하여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범하는 오류의 유형과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장에서는 ‘-고’와 ‘-아/어서’의 구분 및 사용에 있어 정확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5.1. 교수 대상

이 절에서는 베트남 현지에서 학습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순서 연결어미 ‘-고’와 ‘-아/어서’에 대한 학습 내용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앞서 초급 단계의 한국어 교재<sup>17)</sup>에서 제시된 것을 살펴 본 바와 같이 ‘-고’와 ‘아/어서’의 ‘순서’의 기능은 초급단계에서 교육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초급 단계의 초반에 있는 학습자에게 ‘-고’와 ‘-아/어서’가 지닌 많은 통사적 제약을 제시하면서 의미까지 설명한다면 학습의 부담이 커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순서 ‘-고’와 ‘-아/어서’는 초급 후반에서 다루고자 한다.

곽지영 외(2011)에서는 문법 항목 중 하나의 형태에 여러 가지 의미와 기능이 담겨 있는 경우 한 번에 하나씩 제시하여야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즉, 하나의 문법 항목의 여러 가지 의미를 한꺼번에 가르치지 않고 여러 번 나누어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고’의 문법 항목은 하나의 형태에 ‘나열’과 ‘순서’의 2가지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한 단원에서 하나의 의

17)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1, 2』(2009), 서울대학교 『서울대 한국어 1A-B』(2010), 세종학당 『세종 한국어 2』(2013), 『연세 한국어 1-1, 1-2』(2007)에 따름.

미만 설명하는 것이 올바르다. 4장에서 베트남인 학습자들의 ‘-고’와 ‘-아/어서’의 의미들에 대한 제시 방법을 조사했을 때, 대상자의 86%가 각 단원에서 의미를 따로 제시했다고 응답하였고 14%가 반대로 한 단원에서 묶어서 제시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예상보다 베트남인 학습자들에게 이 교수의 효과가 달성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 조사 결과에 따라 ‘-고’의 의미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대상자의 수는 43%를 차지하고 83%가 ‘-아/어서’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각 단원에서 의미를 개별적으로 언급하고 습득시키는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베트남인 학습자들의 53%는 한 단원에서 여러 가지의 의미를 묶어서 학습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법 교육 원리가 아닌 학습자 요구에 맞는 교육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 제시할 교육 방향은 한 단원에서 ‘-고’의 ‘나열’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다른 단원에서 ‘-아/어서’의 ‘이유-원인’에 대한 내용을 언급한 후, ‘-고’와 ‘-아/어서’의 ‘순서’ 의미에 대한 학습 내용은 같은 단원에서 한꺼번에 제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 장에서는 초급 초반에서 ‘-고’의 ‘나열’ 기능과 ‘-아/어서’의 ‘이유-원인’ 기능을 습득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육방안을 제시하겠다. 또한 베트남 현지에서 학습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초급 후반 단계에서 순서 ‘-고’와 ‘-아/어서’의 의미적 차이를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교안을 구성하고자 한다.

## 5.2. 교수 방법

조사 대상자의 작문을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고’와 ‘-아/어서’를 순서의 기능으로 사용할 때 모두 오류빈도가 높았으며, 의미적 오류가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초급 단계에서 ‘-고’와 ‘-아/어서’의 의미 차이에 대한 기존 교육은 베트남인 학습자들에게 도움이 안 되므로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더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연결어미를 학습할 때 가장 받고 싶은 교육 방안은 베트남어 대응 표현을 찾아 설명하는 것이 아닌 양국 언어의 차이점을 강조하며,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예문을 통해 연결어미의 정확한 의미를 설명해주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모어 요소를 완전히 없애고 한국어로 강의하는 것은 초급 학습자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모어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하고 문법의 의미를 설명할 때 모어 간접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한국어 예문에 집중하여 학습자들에게 실제로 문법 사용 상황을 이해하게 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교수의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 <표 24>와 같다.

<표 24> 교수의 방법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학습 문법:</b> ‘-고’와 ‘-아/어서’의 순서</li> <li>• <b>학습 대상:</b> 베트남 현지에서 학습하는 후반 베트남인 학습자<br/>(초급 초반 단계에서 ‘-고’의 ‘나열’과 ‘-아/어서’의 ‘이유-원인’을 학습한 대상자)</li> <li>• <b>학습 방식:</b> 교사와 학생의 말: 베트남어/ 예문: 한국어</li> </ul> |
|---|

### 5.3. 교수 내용

위에서 분석했듯이, 베트남인 학습자가 일으키는 순서의 ‘-고’와 ‘-아/어서’의 오류 원인은 4가지이다. 첫째, 선후관계의 상관성과 지속성과 관련된 원인이다. 둘째, 한국어에서는 선후관계에 따라 ‘-고’와 ‘-아/어서’ 중 하나

를 선택하여 사용해야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선후관계와 상관없이 하나의 접속사 ‘rôi’를 사용한다. 셋째, 한국어 문장에서 ‘-고’와 ‘-아/어서’ 연결어미는 필수 요소임에 비하여 베트남어에서 접속사 ‘rôi’는 생략이 가능하다. 넷째, 순서 ‘-고’와 ‘-아/어서’의 시제 제약에 준수하여야 하므로 베트남인 학습자가 혼동하기 쉬운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절에서는 이러한 오류 원인을 어떻게 해결할지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4.3절에서 밝혔듯이 베트남인 학습자는 ‘-고’와 ‘-아/어서’의 가장 중요한 의미적 변별 요소인 ‘지속성, 상관성’에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인 학습자가 어떤 원인으로 ‘-고’와 ‘-아/어서’의 ‘지속성, 상관성’에 익숙하지 못했는지 베트남에서 보편적인 한국어 교재들과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교안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대 한국어 1B>(2010)에서는 ‘-고’와 ‘-아/어서’의 순서 의미의 차이에 대해 설명할 때, ‘-고’의 순서 의미는 두 행동을 상관성 없이 그저 시간 순서에 따라 나타낼 때 사용하고 ‘-아/어서’의 순서 의미는 두 행동 선행절에 나타난 행동이 후행절에 나타난 행동의 전제가 됨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고 제시하였다. 그 후 학습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문과 그림을 동시에 제시했지만 하나의 예문만 제시했기에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설명문도 불분명한 편이다. 이 교재에서 ‘상관성’과 ‘지속성’의 두 가지의 차이를 나누어 언급하지 않고 합쳐서 ‘전제’라는 단어로만 사용하여 설명하는 것은 학습자가 ‘전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여 결국 더 혼란스러워하게 한다.

<세종 한국어 익힘책 2> 베트남어 판(2013)에서는 ‘-고’와 ‘-아/어서’의 차이에 대해 집중하여 언급하지 않고 그냥 예문 없이 모호하게 설명하였다. ‘-고’의 순서 의미를 설명할 때는 두 행동이 순서대로 나타날 때 사용하고 ‘-아/어서’의 순서 의미를 설명할 때는 두 행동이 서로 상관성이 있어야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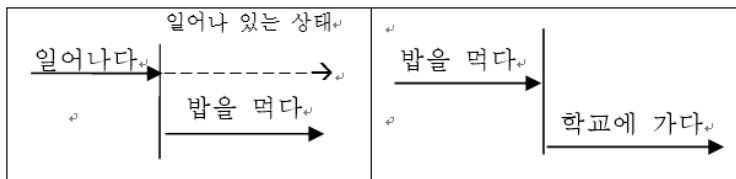
고 순서대로 나타나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1, 2>(2008)에서는 <세종 한국어 익힘책 2> 베트남어 판과 마찬가지로 ‘-고’의 순서 의미를 언급할 때 시간적으로 두 행동을 연결할 때 사용한다고 제시하였다. ‘-아/어서’의 순서 의미를 제시할 때는 두 행동이 시간적으로 나타나며 앞선 관계를 가질 때 사용하고 게다가 선행절에 나타난 행동은 독립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후행절에 나타난 행동과 상관성이 높고 지속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 교재에서는 구체적으로 상관성과 지속성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아 학습자가 혼동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본다.

Tran Chau Thuy(2010)에서는 순서 연결어미 ‘-고’와 ‘-아/어서’를 변별할 때 어려움을 겪는 원인은 두 연결어미 모두 선행절에 나타난 행동이 후행절에 나타난 행동과 시간적으로 앞서 일어난다는 유사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먼저 연결어미 ‘-아/어서’의 순서 의미 특성과 차이점을 파악하여 그 다름을 밝힌 후 교육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형태적 측면과 통사적 측면에 집중하여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림과 폼사 카드를 사용하여 문장 내에 반복되는 요소의 여부에 따라 ‘-고’나 ‘-아/어서’를 선택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분석했듯이 목적어의 중복 여부의 특징에 따라 ‘-고’인지 ‘-아/어서’인지 판단하고 사용하는 것은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고 알 수 있다. 그 선행절의 행동이 완료되고 그 행동이 남아 있는 결과만 지속된다면 ‘-고’를 사용하고, 반대로 그 행동이 아직 완료되지 않는 상태로 후행절 행동과 같이 이어진다면 ‘-아/어서’를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학습자에게 선·후행절의 두 행동의 상관성에 대해 설명할 때 예문을 통해, 앞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아 뒤의 행동이 일어날 수 없는 경우에는 ‘-아/어서’를 사용하고 앞의 행동이 안 일어나도 뒤의 행동도 나타날 수 있는 경우

에는 ‘-고’를 사용한다고 강조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두 행동의 지속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위해 아래와 같은 <그림 1>을 사용하여 두 행동의 관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 순서 ‘-고’와 ‘-아/어서’의 지속성



‘-고’와 ‘-아/어서’의 순서 의미의 차이에 대해 설명한 후 교사가 아래의 표로 종합적으로 학생에게 정리해주면 효율적이다.

<표 25> 순서 ‘-고’와 ‘-아/어서’의 의미적 차이

	‘-고’	‘-아/어서’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의 행동이 안 일어나도 뒤의 행동도 나타날 수 있는 경우</li> <li>• 앞의 행동이 완전히 끝났을 때 뒤의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의 행동이 안 나타나면 뒤 행동이 일어날 수 없는 경우</li> <li>• 앞의 행동을 아직 진행하고 있는데 뒤의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li> </ul>

연습 단계에서는 교사가 여러 가지의 형태로 학습자에게 선·후행절의 두 행동의 관계를 파악하게 하고 ‘-고’나 ‘-아/어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문장을 완성시키게 한다. 이를 통해 의미적으로만 아닌 통사적인 연습도 합쳐서 연습시킬 수 있다.

둘째, 교사가 학습자에게 질문을 하면서 묻고 답하는 방법을 통해 학습자에게 베트남어의 ‘rôi’와 한국어의 ‘-고’, ‘-아/어서’의 차이점을 알려주어야 한다. 교사가 자세한 한국어와 베트남어 예문을 제시하고 먼저 학습자에

게 차이점을 맞히게 한 후 두 언어의 특성을 설명해준다. 연습 단계에서는 교사가 학습자에게 문장을 만드는 과제를 부과하고 연습시킨다. 교사가 행동을 보여주는 그림을 제시하고 한국어로 문장을 만들게 할 때 학습자가 그 상황에서 ‘-고’나 ‘-아/어서’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연습 문제는 다음과 같다.

<표 26> ‘-고’와 ‘-아/어서’의 연습 문제

1. 내일 뭐해요?  
 (“도서관에 가다“ + “책을 빌리다“ 사진 제시)

->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요.

셋째, 교사가 학습자에게 베트남어의 경우 특정 상황에서 ‘röi’를 생략할 수 있지만, 한국어의 경우 ‘-고’와 ‘-아/어서’를 생략할 수 없음을 예문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오류를 범하는 것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는 ‘-고’와 ‘-아/어서’와 항상 결합되는 동사의 예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좋다.

<표 27> ‘-고’와 ‘-아/어서’와 항상 결합되는 동사

‘-고’	타다, 하다, 넣다, 먹다, 입다, 신다, 들다, 쓰다 ...
‘-아/어서’	가다, 오다, 들어가다/오다, 내리다, 일어나다, 걷다 ...

위의 내용을 학습자의 기억에 오래 남기기 위하여 교사는 ‘-고’와 ‘-아/어서’와 항상 결합되는 동사를 바탕으로 객관식 문제를 제시하고 학습자에게 맞는 것을 고르게 하는 방식으로 연습시킨다. 연습 과제는 다음과 같다.

<표 28> ‘-고’와 ‘-아/어서’의 연습 문제

1. 저는 안경을 (✓쓰고/ \*써서) 신문을 봐요.  
 2. 주말에 극장에 (\*가고/ ✓가서) 영화를 봤어요.

넷째, 교사가 ‘-고’와 ‘-아/어서’의 서술어 제약, 시제 제약, 주어 일치 제약, 문장 종류 제약에 대하여 설명해준다. 교사가 각 제약의 개별적인 특성을 예문과 같이 설명한 후 다음과 같이 <표 28>으로 종합적으로 정리해준다면 학습자에게 도움이 된다.

<표 29> ‘-고’와 ‘-아/어서’의 제약 특성

제약		‘-고’	‘-아/어서’
시제 제약	‘-았/었-’	x	x
	‘-겠-’	x	x
문장 종류 제약	명령문	✓	✓
	청유문	✓	✓
서술어 제약	동사	✓	✓
	형용사	x	x
	(이)다	x	x
주어 일치 제약		✓	✓

연습 단계에서는 통사적으로 연습하기 위해 교사가 학습자에게 문장을 완성시키는 연습을 하게한다. 이는 학습자가 ‘-고’와 ‘-아/어서’의 제약 조건을 고려하고 의미적으로도 파악하여 ‘-고’나 ‘-아/어서’를 선택하여 문장을 완성할 수 있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통사적 연습 과제는 다음과 같다.

<표 30> ‘-고’와 ‘-아/어서’의 연습 문제

- |   |
|---|
| <p>1. 큰 소리/ 내다/ 발음 연습/ 해요.<br/>-&gt; 큰 소리를 내서 발음 연습을 해요.</p> <p>2. 수영복/ 입다/ 수영을 하세요.<br/>-&gt; 수영복을 입고 수영을 하세요.</p> |
|---|

활동 단계에서는 위의 연습을 모두 마친 후 교사가 실제 생활에서 나타나는 상황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고’와 ‘-아/어서’를 변별하는 연습과 함께 자유롭게 대화를 구성하도록 한다. 학생들 자기의 꿈이나 계획을 묻기와 같은 주제 등을 발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 5.4. 교수 모형

초급이나 중급 단계에서는 주로 PPP<sup>18)</sup> 교육 모형이 활용되기 때문에 본고에서도 PPP모형을 응용하여 도입-제시-연습-활동-마무리 5단계로 제시하고자 하며 ‘-고’와 ‘-아/어서’의 순서 의미를 가르치는 모형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 방안은 다음과 제시한다.

먼저 도입 단계에서는 교사와 학습자가 자연스러운 대화를 시작하면서 오늘 배울 문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교사는 묻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학습할 문법을 제시하고 학생에게 그 문법 형태를 활용하여 문장을 만들어 보게 한다.

제시 단계에서 교사는 학습자와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습 목표가 되는 연결어미를 노출시키고 학습자가 학습 목표에 관심을 갖게 한다. 학습 내용과 목적을 제시하고, 학습자의 이해 수준에 맞게 순서의 ‘-고’와 ‘-아/어서’ 의미를 전달하고 형태·통사·의미적인 사용 환경을 제시하며 예문을 통하여 ‘-고’와 ‘-아/어서’의 사용상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연습 단계에서는 제시 단계에서 학습한 지식을 오랫동안 학생의 기억에 남기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형을 3단계로 나누어 연습한다. 1단계는 통제된 연습으로 기계적인 연습 단계로 볼 수 있다. 교사는 학습자에게 문장을

---

18) PPP: Presentation(제시) - Practice(연습) - Production(활용)

보여주고 교수 목표인 연결어미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는 과제를 제시하고 문장의 선후관계를 알 수 있도록 한다. 연습의 2단계는 형태에 맞춘 ‘-고’와 ‘-아/어서’의 판별 연습이다. 교사가 문장을 제시하고 부족한 조사들을 정확하게 채우고 ‘-고’와 ‘-아/어서’를 고려하여 사용함을 통하여 완전한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하도록 한다. 마지막 3단계는 의사소통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상호 활동 연습을 하는 단계이다. 교사가 한 문장만을 제시하고 학습자에게 그림카드나 주어진 단어를 보여주면서 ‘-고’나 ‘-아서/서’를 사용해서 이어질 문장을 구성하는 연습을 하게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의사소통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활동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실제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활동이 이루어진다. 본고에서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자유 작문을 완성하기 등의 활동을 제안한다. 학습자들의 발표를 듣고 학습자들의 대치 오류 문제에 대해 중심으로 설명하고 고쳐준다. 이를 통해 이 두 연결어미의 정확한 사용을 유도한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교사가 학습자가 이 수업의 학습 목표 연결어미의 파악 정도를 확인한다. 그리고 학습자가 실제 생활에서 목표 연결어미 사용할 때 구분할 수 있는 차이점과 주의해야 하는 점을 다시 설명하고 이를 고려하여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숙제를 제시한다.

## 5.5. 수업 교안

앞에서 ‘-고’와 ‘-아/어서’의 순서 의미 교육의 실제 수업 모형을 ‘도입→제시→연습→활용→마무리’의 순서에 따라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자세한 교안을 구성하고자 한다.

<표 31> 순서 연결어미 '-고'와 '-아/어서'의 교안

목표 문법	'-고'와 '-아/어서' 순서의 교육		
수준	일반 목적 초급 후반 학습자		
학습 목표	상황 및 맥락에 따라 순서 '-고'와 '-아/어서'를 정확하고 유창하게 구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수업 진행 방식	모어로 진행 (베트남어)		
준비물	칠판, PPT 자료, 활동지		
수업 시간	50분		
단계	학습 내용	시간	학습 자료
도입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auto; width: fit-content;">                     설명: T: 교사/ S: 학생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목표 문법을 노출시키도록 한 후 학생의 답을 목표 문법으로 연결한다.</li> </ul> <p>T: 여러분,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어요?                      S: Hôm nay tôi đã thức dậy lúc 9 giờ.                      T: 한국어로 하면 어떻게 말해요?                      S: 오늘 9시에 일어났어요.                      T: 네. 그리고 뭐 했어요?                      S: Tôi đã ăn cơm.                      T: 한국어로는요?                      S: 밥을 먹었어요.                      T: 그렇군요. Hôm nay tôi đã thức dậy lúc 9 giờ. 그리고 Tôi đã ăn cơm. 한 문장으로 어떻게 말하죠?                      S: Hôm nay tôi đã thức dậy lúc 9 giờ rồi ăn cơm.                      T: 네 그렇죠. (교사가 들으면서 칠판에 쓴다). 한국어에서는 선생님이 “오늘 9시에 일어나<u>서</u> 밥을 먹었어요.” 이렇게 말해</p>	5분	칠판, PPT 사용

	<p>요. (말하면서 칠판에 쓴다).  T: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S: Tôi đã đi đến trường.  T: 네. 한국어로 해주세요.  S: 학교에 갔어요.  T: 베트남어로 한 문장으로 어떻게 말해요?  S: Tôi đã ăn cơm rồi đến trường.  T: 좋아요. (교사가 들으면서 칠판에 쓴다). 선생님이 한국어로 말하면 “밥을 먹<u>고</u> 학교에 갔어요.” 이렇게 말해요. (교사가 말하면서 칠판에 쓴다.)  T: (칠판을 향해 손으로 가리키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순서적으로 나타나는 두 행동을 연결하고 싶어요. 베트남어에서는 “rồi”로 사용하면 되죠?  S: 네.  T: 한국어에서는요? (1) 문장에서는 뭐로 사용했나요?  S: ‘-아/어서’를 사용했어요.  T: 네. (2)문장에서는요?  S: ‘-고’를 사용했어요.  T: 좋아요. 순서적으로 앞 문장의 행위가 먼저 일어난 후 뒤 문장의 행위가 일어나는 문장을 이어줄 때 베트남어에서 ‘rồi.’로 사용해요. 그리고 한국어에서는 ‘-아/어서’와 ‘-고’를 사용할 수 있어요. 오늘 수업은 우리가 ‘-고’와 ‘-아/어서’의 순서에 대해 공부할 거예요.</p>		
제시	<p>1. 교사가 ‘-고’와 ‘-아/어서’의 서술어 제약을 설명해준다.  T: ‘순서’ 의미의 ‘-고’와 ‘-아/어서’는 둘 다 동사만 결합해요. 형용사 안돼요. ‘(이)다’도 안 됩니다.  2. 교사가 문법의 시제 제약에 대해 설명해준다.  T: 순서 의미를 갖는 ‘-고’ 경우는 ‘-겠-’과 ‘-았/었-’이 뒤 문장에만 나와요. 알겠죠?  S: 네.  T: 예를 들면 ‘어제 공부했어요. 그리고 갔어요.’ 한 문장으로 말하면 어떻게 말해요?  S: ‘어제 공부하고 갔어요.’  T: 아주 잘했어요!! ‘-아/어서’의 순서 의미도 같아요. 뒤 문장에서만 ‘-았/었-’과 ‘-겠-’이 나타나요. 예를 들면, “백화점에 갔어요. 옷을 샀어요.” 한 문장으로 어떻게 말하죠?  S: “백화점에 가서 옷을 샀어요.”  T: 아주 잘했어요.</p>	15 분	PPT 사용



3. 교사가 문법의 주어 일치 제약에 대해 설명해준다.

T: ‘-고’와 ‘-아/어서’의 순서 의미를 나타내려면 앞 문장의 주어와 뒤 문장의 주어가 같아야 해요. 즉, 앞 문장의 주어와 뒤 문장의 주어는 하나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집에 들어오고 오빠가 자요”에서는 순서 의미가 아닌 나열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4. 교사가 문법의 문장 종류 제약에 대해 설명해준다.

T: ‘-고’와 ‘-아/어서’의 순서 의미는 ‘-(으)세요’ 등의 명령문과 잘 결합하고 ‘-(을)까요?’ 등의 청유문도 잘 결합해요.

T: 위에서 ‘-고’와 ‘-아/어서’의 제약 조건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다시 한 번 정리해줄게요.

(교사가 표로 ‘-고’와 ‘-아/어서’의 제약을 제시한다.)

제약		‘-고’	‘-아/어서’
시제 제약	‘-았/었-’	x	x
	‘-겠-’	x	x
문장 종류 제약	명령문	✓	✓
	청유문	✓	✓
서술어 제약	동사	✓	✓
	형용사	x	x
	(이)다	x	x
주어 일치 제약		✓	✓

5. 교사가 문법의 의미를 설명해준다.

T: 순서 의미를 표현하려면 베트남어로 어떻게 말해요?

S: ‘röi’를 사용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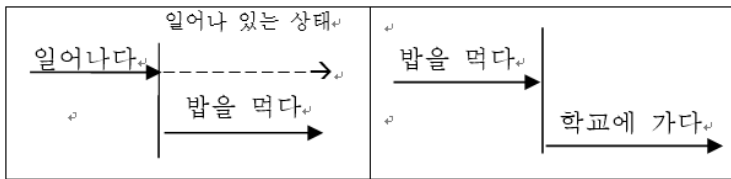
T: 맞아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수업을 시작했을 때 얘기한 것처럼, 순서의 의미를 표현하려고 (1) 문장에서는 ‘-아/어서’를 사용했어요. (2)문장에서는 ‘-고’를 사용했어요. 그럼 ‘-아/어서’와 ‘-고’의 순서 의미가 똑같아요? 달라요?

S1: 달라요.

S2: 똑같아요.

T: 음 S1학생은 다르다고 하고 S2학생은 같다고 하네요. 베트남어로 표현할 때 어떤 상황이든 모두 ‘röi’를 사용하는데

한국어에서는 안 그래요. 상황에 따라 '-고'를 사용하는지, '-아/어서'를 사용하는지 고려해야 해요. 순서 의미의 '-고'와 '-아/어서'는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예를 보여 줄게요.



예: (1). 일어나서 밥을 먹어요.  
 (2). 밥을 먹고 학교에 갔어요.

T: (교사가 사진을 제시하며) (ㄱ)에서 '일어나는' 행동이 먼저 나타났어요. 그 후에는 '밥을 먹는' 행동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순서' 의미예요. 마찬가지로 (ㄴ)에서는요?

S: '밥을 먹는' 행동이 먼저 나타난 다음에 '학교에 가는' 행동이 일어나요.

T: 네 맞아요, 잘했어요. 그런데 두 문장의 의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우리 문장의 하나씩 볼게요. (1)에서는 앞의 행동은 '일어나다'이고 뒤의 행동은 '밥을 먹다'예요. 질문 하나 있어요. 밥을 먹을 때 일어나 있어요?

S: 네. 일어나 있어요.

T: (2)에서는 앞의 행동은 '밥을 먹다'이고 뒤의 행동은 '학교에 가다'예요. 그러면 학교에 갈 때 밥을 먹고 있어요?

S: 아니요, 밥을 다 먹었어요. 지금 안 먹어요.

T: 아주 좋아요. 이는 '고'와 '-아/어서'의 차이예요. 앞의 행동을 아직 진행하고 있는데 뒤의 행동이 나타나요. 그때는 '-아/어서'를 사용해요. 하지만 만약 앞의 행동이 완전히 끝났을 때 뒤의 행동이 나타나요. 그때는 '-고'를 사용하면 돼요. 다 이해했나요?

S1: 네.

T: 좋아요. 질문 하나 더 있어요. 일어나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 있어요?

S: 아니요. 밥을 먹을 수 없어요.

T: 그렇죠.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즉, 앞의 행동이 안 나타나면 뒤의 행동이 일어날 수 없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아/어서'를 사용해요. 그럼 밥을 안 먹으면 학교에 가는 행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S: 네.

T: 맞아요. 밥을 안 먹어도 학교에 갈 수 있어요. 즉, 앞의 행동이 안 일어나도 뒤의 행동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러한 경

우에는 ‘-고’를 사용하세요.

S: 네 이해했어요.

6. 종합: 교사가 표로 순서 의미의 ‘-고’와 ‘-아/어서’에 대해 재정리해준다.

	‘-고’	‘-아/어서’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의 행동이 안 일어나도 뒤의 행동도 나타날 수 있는 경우</li> <li>• 앞의 행동이 완전히 끝났을 때 뒤의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의 행동이 안 나타나면 뒤 행동이 일어날 수 없는 경우</li> <li>• 앞의 행동을 아직 진행하고 있는데 뒤의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li> </ul>

(위처럼 교사가 더 많은 예문으로 설명해주며 상황을 만들어 학생들과 묻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해시킨다.)

7. 주의사항:

교사가 ‘-고’와 ‘-아/어서’의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해준다.

T: 여러분, 베트남어에서 ‘ròi’를 생략해서 문장을 만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Đi xe đạp về nhà.”의 문장에서 베트남 사람들이 ‘ròi’가 없이 말해요. 그리고 “Bước về nhà.”의 문장에서도 ‘ròi’가 없어요. 베트남어에서는 ‘ròi’를 생략해서 말할 수 있지만 한국어에서는 ‘-고’나 ‘-아/어서’를 빼고 말하면 안 되니까 주의하세요.

S: 네, 알겠어요.

T: 그러면 “Đi xe đạp về nhà.”의 경우, 한국어로 쓰면 어떻게 써야 돼요?

S: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요.”

T: 왜 ‘-고’를 사용해요?

S: ‘자전거를 타는’ 행동이 먼저 끝났고 행동의 남아 있는 상태만 유지돼서 ‘-고’를 사용해야 돼요.

T: 아주 좋아요. 그러면 “Bước về nhà.”의 경우는요?

S: ‘걸는’ 행동을 하고 있고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아/어서’를 사요해서 “집에 걸어서 가요.” 이렇게 쓰면 돼요.

T: 네 맞아요. 잘했어요! 이 오류를 범하기를 피하려고 ‘-고’와 ‘-아/어서’와 항상 결합되는 동사 몇 개를 정리해줄게요.

	<table border="1"> <tr> <td data-bbox="293 472 443 555">‘-고’</td> <td data-bbox="448 472 1061 555">타다, 하다, 넣다, 먹다, 입다, 신다, 들다, 쓰다 ...</td> </tr> <tr> <td data-bbox="293 562 443 645">‘-아/어서’</td> <td data-bbox="448 562 1061 645">가다, 오다, 들어가다/오다, 내리다, 일어나다, 걷다 ...</td> </tr> </table>	‘-고’	타다, 하다, 넣다, 먹다, 입다, 신다, 들다, 쓰다 ...	‘-아/어서’	가다, 오다, 들어가다/오다, 내리다, 일어나다, 걷다 ...		
‘-고’	타다, 하다, 넣다, 먹다, 입다, 신다, 들다, 쓰다 ...						
‘-아/어서’	가다, 오다, 들어가다/오다, 내리다, 일어나다, 걷다 ...						
연습	<p>1. 연습 1 교사가 다음 연습 문제를 학습자와 같이 풀고 구문의 의미적, 통사적 특성과 제약 특징 재설명한다.</p> <p>예: 저는 어제 영화를 (보고/ 봐서) 태권도를 배웠어요.</p> <p>T: (문장을 제시하며) 여러분, 문장 하나 있어요. 동사 ‘보다’ 있어요. 이 문장에서 ‘-고’를 사용해요? ‘-아/어서’를 사용해요? S: ‘-고’를 사용해요. ‘저는 어제 영화를 보고 태권도를 배웠어요.’ T: 아주 잘했어요. 그럼 예문과 같이 맞는 것을 골라서 아래 문장들을 완성하세요.</p> <p>1. 주말에 극장에 (가고/ 가서) 영화를 봤어요. 2. 어제 숙제를 (하고/ 해서) 텔레비전을 봤어요. 3. 저는 김밥을 (사고/ 사서) 친구하고 같이 먹었어요. 4. 저는 안경을 (쓰고/ 써서) 신문을 봐요. 5. 학교에 버스를 (타고/ 타서) 학교에 가요. 6. 회사에 (걸고/ 걸어서) 갔어요.</p> <p>2. 연습 2: 교사가 문장을 제시하고 학습자들에게 부족한 조사들을 정확하게 채우고 ‘-고’와 ‘-아/어서’를 고려해서 사용해서 완벽한 문장을 만들도록 하다.</p> <p>예: 빵/ 먹다/ 학교/ 가다.</p> <p>T: (문장을 제시하며) 여러분 보세요. ‘-고’나 ‘-아/어서’를 고려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S: “빵을 먹고 학교에 가요.” T: 잘했어요. 그럼 예문과 같이 아래 문장들을 완성하세요.</p> <p>3. 큰 소리/ 내다/ 발음 연습/ 해요. 4. 수영복/ 입다/ 수영을 하세요. 5. 옷/ 벗다/ 벽/ 걸었어요. 6. 옷/ 벗다/ 누웠어요.</p>	15분	PPT 사용				

	<p>7. 딸기/ 씻다/ 먹을까요?        8. 손/ 씻다/ 과일/ 먹어요.        9. 음악회/ 참여하다/ 상/ 받았어요?        10. 잠실역/ 내리다/ 3번 출구로 나가세요.</p> <p>3. 연습 3:        교사가 한 문장만 제시하고 학습자들에게 그림으로 주어진 단어를 보여주면서 ‘-고’나 ‘-아서/서’를 사용해 이어질 문장을 구성하는 연습하게 된다.</p> <p>예: 내일 뭐해요?        (“도서관에 가다“ + “책을 빌리다“ 사진 제시)</p> <p>T: 여러분, 사진을 보세요. 첫 사진은 무슨 행동이에요?        S: “도서관에 가요.”        T: 네, 두 번째 사진은요?        S: “책을 빌려요.”        T: 좋아요. 그럼 한 문장으로 말하면 ‘-고’를 사용해요? ‘-아/어서’를 사용해요?        S: ‘-아/어서’요.        T: 왜요?        S: 도서관에 안 가면 책을 못 빌려요.        T: 네 맞아요. 한 문장으로 말해 보세요.        S: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요.”        T: 잘했어요. 그럼 예문과 같이 사진을 보고 한 문장으로 말해보세요.</p> <p>1. 어제 무엇을 했어요?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 + “집에 가다” 사진 제시)        2. 설날에 뭐 할 거예요?        (“한복을 입다” + “친척 집에 가다” 사진 제시)        3. 약국에 어떻게 가요?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가다“ + ”진진하다“ 사진 제시)        4. 밥을 어떻게 만들어요?        (“김, 밥, 계란, 야채 준비“ ”말다“ 사진 제시)</p>		
<p>활동</p>	<p>◆ 짝활동 진행: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공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꿈이 무엇인지에 대한 작문한다. 작문 중 ‘-고’와 ‘-아/어서’를 사용해야 한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작문을 발표하도록 하고 오류를 지적해준다.</p>	<p>10 분</p>	<p>PPT 사용</p>

	<p>T: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뭐예요?  S: 토픽 6급 따기예요.  T: 그렇군요. 또 어떤 계획이 있어요?  S: 한국 회사에 취직할 거예요.  T: 네 좋아요. 그러면 앞으로 무엇을 할지, 꿈이 무엇인지 써 보세요. 쓸 때, '-고'와 '-아/어서'를 사용하세요. 5분 동안 쓰고 우리 같이 얘기할 거예요.</p>		
<p>마무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사가 오늘 수업의 내용을 재정리하고 학생의 이해도를 확인한다.</li> </ul> <p>T: 여러분, 오늘 순서 의미의 '-고'와 '-아/어서'를 배웠어요. 언제 '-고'를 사용해요?  S: 앞의 행동이 안 일어나도 뒤의 행동도 나타날 수 있을 때와 앞의 행동이 완전히 끝났을 때 뒤의 행동이 나타날 때 사용해요.  T: 좋아요. 그러면 언제 '-아/어서'를 사용해요?  S: 앞의 행동이 안 나타나면 뒤 행동이 일어날 수 없을 때와 앞의 행동을 아직 진행하고 있는데 뒤의 행동이 나타날 때 사용해요.  T: 네 맞아요. '저는 편지를 썼어요. 보냈어요.' 한 문장으로 말해 보세요.  S: '저는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T: 아주 좋아요. 저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볼 거예요. 잘 거예요.' 한 문장으로 어떻게 말해요?  S: 저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잘 거예요.'  T: 네 잘했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집에서 '-아/어서'와 '-고'를 사용해서 주말 계획에 대해 5문장을 써 보세요. 감사합니다!</p>	<p>5 분</p>	<p>PPT 사용</p>

## 6. 결론

본고에서는 베트남 학습자들이 순서 연결어미 ‘-고’와 ‘-아/어서’의 형태적, 통사적, 의미적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오류 양상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베트남어는 글자마다 각각 의미가 있으나 한국어는 하나의 연결어미에 다양한 형태·의미와 통사적인 특징이 존재한다. 순서를 중심으로 유사한 의미를 가진 연결어미 ‘-고’와 ‘-아/어서’의 경우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많은 오류를 범한다. 그러므로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이들을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고’와 ‘-아/어서’의 형태, 통사적 특성과 의미 기능에 대해 살펴본 후 ‘-고’와 ‘-아/어서’에 대응되는 베트남어 표현을 찾아보았다. 그리고 이들 문법 항목의 오류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오류 원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논의 내용 및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선행연구와 한국어 사전 등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순서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고’와 ‘-아/어서’의 특성을 형태적, 통사적, 의미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들 두 문법 항목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순서’로서의 ‘-고’와 ‘-아/어서’는 형태·통사·의미적인 부분에 있어 공통점이 있지만 분명한 차이점도 있다. 첫째, 앞 문장과 뒤 문장은 상관성에 따라 ‘-고’나 ‘-아/어서’를 고려하여 사용해야 한다. 둘째, 문장 내의 동사들이 모두 타동사인 경우, 두 동사가 각각의 목적을 가질 때 ‘-고’를 사용하는 반면에, 문장 내의 동사들이 모두 타동사인 경우, 두 동사가 동일한 목적을 가질 때 ‘-아/어서’를 사용한다. 셋째, ‘-고’는 앞의 행위가 끝난 후 그 다음 행위가 일어나는 경우에 쓰임에 비하여, ‘-아/어서’는 앞의 행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그 다음 행위가 일어나는 경우에 쓰인다.

3장에서는 순서 연결어미 ‘-아/어서’와 ‘-고’의 의미가 베트남어와 어떻게 대응되는지 살펴보았다. ‘순서’의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아/어서’에 대응하는 베트남어 표현은 주로 접속사 ‘rôi’로 표현된다. 그러나 특정한 상황에서는 접속사를 흔히 생략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4장에서는 베트남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연결어미 ‘-고’와 ‘-아/어서’의 오류 양상 및 오류 원인을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와 ‘-아/어서’가 모두 고빈도 연결어미이며 오류빈도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학습자 오류율은 ‘-아/어서’보다는 ‘-고’가 약간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오류 중에서 형태와 통사적인 오류에 비해, 의미적 오류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 본고에서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어에서는 ‘-고’와 ‘-아/어서’를 구분하여 선후관계의 상관성, 지속성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반면, 베트남어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rôi’와 같은 접속사만 사용하고 선후의 ‘순서’ 관계를 표현하기 때문에 모국어의 문법 영향을 받아 두 항목을 구별하지 못하여 오류가 발생한다. 둘째, 한국어에서는 연결어미가 생략될 수 없는 반면, 베트남어에서는 접속사가 생략 가능한 경우가 많다. 셋째, 한국어의 경우 시제 제약 조건이 존재하나 실제로 학습할 때 베트남 학습자들이 이러한 제약 조건들에 대한 교육 방안을 받지 못하여 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넷째, 학습자가 선후행절의 관계와 관련한 상관성과 지속성에 대해 판단하지 못하여 언제 ‘-고’나 ‘-아/어서’를 사용하는지를 구별하지 못하여 오류를 범한다.

5장에서는 3장과 4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베트남인 초급 후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순서로서의 ‘-고’와 ‘-어서’의 의미 관계 수업 모형을 제시하였다.

베트남인 학습자는 모국어 영향을 받아 순서의 연결어미 ‘-고’와 ‘-아/어



서'의 용법을 혼동할 수 있으므로 베트남인 학습자에게 까다로운 문법 항목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고'와 '-아/어서'의 순서의 용법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객관적 요소 및 주관적인 연구자의 한계 때문에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교육 방안 효율적인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 검증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와 같은 점을 보완하여 추후의 연구에서 더 치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동시에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더 효과적인 교육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소영(2012), 오류 분석을 통한 연결어미 지도방안, - 초급 중국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김광미(2010), 연결어미 '-아/어서'와 '-고'의 교수 학습방안에 대하여, '-한일 대조 분석의 관점에서-', 한국어문화교육 제4권 2호
- 김동수(2011), 순서 표현 연결어미 '-고'와 '-어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김선미(2017),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고와 -아/어서 교육 방안 고찰. 어문논총(31), 171-190
- 김수미, (2010), 여성혼이민자 담화에 나타난 연결어미 오류 분석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김은경(2006), 시간의 연결어미 '-아/어서'의 통사론적 특성을 이용한 지도 방안, 단국대학교
- 김은영(2012), 한국어 연결어미 '-고'와 '-어서'의 연구, 한국과 중국 초급 한국어 교재를 중심으로-, 중부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김중섭(2002), 한국어 학습자의 연결 어미 오류 양상에 관한 연구, 언어권별 오류 양상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곽지영 외(2011), 『한국어 교수법의 실제』,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박지영(2016). 한국어 교육을 위한 계기의 연결어미 -고와 -어서의 교육 방법 연구. 언어과학연구, 78, 169-187
- 목지선(2012), 계기의 접속어미 '-고와 '아서의 의미통사상 차이, 어문학, 116, 51-80

- 상홍평(2015),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연결어미 교수방안 연구, -‘-고’(서),  
-아/어서, -(으)니까’를 중심으로-, 안동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서정수(1982) ‘연결어미 {-고}와 {-어(서)}’, 언어와 언어학 8, 53-74
- 송대현(2008), 한국어 초급 교재 학습자를 위한 연결어미 교육방안 연구,  
청주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이상복(1978), 국어의 연결어미에 대하여, -‘-아서’를 중심으로-, 외국어  
로서의 한국어교육 3.1, 59-79
- 이자영(2012),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연결어미 ‘고’와 ‘-아서’의 교육 방  
법 연구, 부경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연봉월(2009), 한국어 학습자의 연결어미 오류 분석을 통한 교육 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임봉교(2018),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연결어미 {-고}와 {-아/어  
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유해준(2016), 한국어 교육 문법 항목 -고와 -아/어서의 교육 내용 연구.  
어문론집, 67, 317-331
- 윤혜선(2013), 한국어 순차 연결어미 교육방안 연구, - ‘고’ ‘-아서’ ‘-다  
가’ ‘-았다가’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장초남(2020),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연결어미 ‘-고’와 ‘-아/어서’의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혜인(2016), 한국어 V아서/어서와 V고의 중국어 대응 표현 연구. 인문  
과학연구논총, 37(1), 217-236
- 진희(2014),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연결어미 ‘-고’와 ‘-어서’의 교육 방  
안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허용 외(200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개론, 박이정

히가시노 사토미(2012), 일본인 학습자를 위한 시간관계 ‘-고’, ‘-아/어서’  
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Diệp Quang Ban(2004), Ngữ pháp Việt Nam phần câu(2004), nhà xuất  
bản đại học sư phạm.

Đào Minh Thu, Đào Thị Minh Ngọc, Nguyễn Mai Vân, Lê Kim  
Ngân, Lê Thanh Hương, Nguyễn Phương Thái, Đỗ Bá  
Lâm(2005), Tập quy tắc cú pháp Tiếng Việt, SP8.5 - Đề tài  
KC.01.01.05/06-10

Nguyễn Anh Quế(1988), Hư từ trong Tiếng Việt hiện đại, Nhà xuất  
bản Khoa học xã hội-Hà Nội.

Nguyễn Ngọc Thư(2020),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 담화에 나타나는 연  
결어미 오류 연구, 호남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Trần Châu Thủy(2010), 베트남인 한국어 초급 학습자를 위한 연결어미  
교수법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Trần Thị Trang(2020),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대조’ 연결어미  
의 교육 방안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한국어 교재>

국어국립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1』, 커뮤니케이션북스  
한국국제교류재단(2009),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1, 2, 커뮤니케  
이션북스

서울대학교(2010), 『한국어 1A-B』,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문진미디어

세종학당(2013), 『한국어 2』, 국립국어원 출판부

연세대학교(2007), 『연세 한국어 1-1, 1-2』, 연세대학교한국어학당, 연세  
대학교 출판부.

## **Abstract**

# A Study on the Errors of Korean Connective Endings '-go' and '-aseo/eoseo' -Focused on Vietnamese Learners-

Doan Thu Thao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jong University

In this study, the researcher describes the errors of Korean Connective Ending 'go' and '-aseo/eoseo' made by Vietnamese Learners. This research paper discusses about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of 'go' and '-aseo/eoseo' in terms of forms, grammar and meanings, then generates effective teaching methods that can help learners to distinguish exactly the two Connective Endings.

'Go' and '-aseo/eoseo' are widely used in daily life which are included in educational programs at elementary level. A suitable curriculum is necessarily required for learners to differentiate and use the two connective ending exactly and effectively.

In the second chapter of this study, the researcher demonstrates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of 'go' and '-aseo/eoseo' in terms of forms,

grammar and meanings.

The third chapter compares and contrasts Korean Connective Ending ‘go’ and ‘-aseo/eoseo’ and Vietnamese Connective Endings in order to find ou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languages.

The fourth chapter provides surveys to illustrate the reality of Vietnamese Learners in using ‘go’ and ‘-aseo/eoseo’. The data points out reasons of the Learners’ errors.

In the fifth chapter, basing on the result of the previous chapter, the researcher provides educational models which are beneficial to learners in using ‘-go’ and ‘-aseo/eoseo’.

The sixth chapter is a summary of main points as well as the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Keywords : Connective Ending, Vietnamese Expressions, Analyze errors, Educational plans, Reasons.**